

2022 경운박물관 · 국립대구박물관 공동기획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Ⅳ

2022

경운박물관 · 국립대구박물관

공동기획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

2022. 4. 16. - 2022. 8. 27.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주최 및 주관 경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책임기획 경운박물관

기획진행 경운박물관 학예사 장경수 박경자 이경희 이해원 김종민 박상진

경운박물관 학예연구원 문희원 채송화

도록편집 배방훈 이계호 호원숙 김선희

진행 설영자 손창옥 이영희 전명애 김용정 이미영 임연옥 이정희
김명희 김혜진 김귀란 오현옥 정순은 지미영 민승옥 이경순
이숙영 최의려 최은순 이수미 강진선 김규인

사 진 서현강

전시주관 관 장 장경수

도록디자인 · 제작 디자인이즘 02-720-0771

발행일 2022년 5월 12일

발행인 장경수

발행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경운박물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www.kwmuseum.org

국립대구박물관

42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Tel. 053-768-6051~2 https://daegu.museum.go.kr

ISBN 979-11-977298-2-9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경운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copyright©2022 Kyungwoon Museum, Daegu National Museum

본 도록은 국립대구박물관의 복식문화 특성과 박물관 협의체 공동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책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경운박물관 · 국립대구박물관 공동기획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Ⅳ

2022. 4. 16. (토) - 2022. 8. 27. (토)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차 례 Contents

인사말	08
장경수 경운박물관 관장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 관장	
가족의 역사가 담기다	12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하다	34
보물이 된 일상의 자료들	58
소중한 인연, 빼어난 솜씨	82
흑단령 ^{黑團嶺} 재현 이야기	96
지미영 61회	
기증 의욕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100
박경자 경운박물관 부관장	
기증자 명단	110
전시장 전경	112

자랑스러운 기증, 복식 중심의 전시

장 경 수 경운박물관 관장



2022년 봄은 어김없이 오고 많은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납니다. 이번 봄 전시는 네 번째 기증전입니다. 2018년 세 번째 기증전 이후 지금까지 기증 유물이 4,500여 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전시는 복식 중심으로 2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꽃꽃이의 대모이신 임화공 선생님의 복식, 혼례 복식의 변화, 남성 예복, 어린이 복식, 그리고 최경자 디자이너를 비롯한 1세대 디자이너의 여성 복식입니다. 근대 한복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현정 디자이너의 한복, 이영희 디자이너의 혼례복과 수집품도 전시합니다.

임화공 선생님은 일생동안 거의 한복만 입으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인품이 묻어 있는 한복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전쟁 중 아기를 위해 손수 지어 입힌 솜바지 저고리는 고단함이 묻어 있는 듯하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양장은 단 한 벌만 가지고 계셨다는데 그 양장과 함께 부군의 양복도 선보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혼 예복도 조금씩 변화한 듯합니다. 전통 원삼에 색, 자수 등의 변화로 개성이 드러납니다. 결혼 예식은 점점 서구화되었고 약혼이라는 절차와 함께 분홍색 약혼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차차 결혼 예복도 순백의 서양식 웨딩드레스로 정착해 갑니다. 특히 결혼 절차도 조금씩 달라져 혼례함, 혼수, 함 속의 혼서지 등 서류들도 점점 변화를 겪습니다. 함 속의 모든 서류와 꼼꼼히 간직한 수많은 기록물이 형식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남성 예복은 정통 서구식 예복으로 모자, 구두, 스틱을 갖춘 정장입니다. 특히 100년이 된 망토는 보기 드문 걸작입니다.

어머니 사랑이 듬뿍 담긴 어린이 옷, 찻돌 맛이 곱디고운 80년이 훌쩍 지난 남아용 돌복, 정성이 가득 들어 있는 잣물림한 색동저고리, 이야기가 숨어 있는 네 따님의 배넛저고리, 모두 곱게 간직해 오신 어머니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보자기를 풀면서 조용히 해 주시던 이야기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로 여성의 복식도 서구화, 현대화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복 디자이너들의 탄생이 줄을 이었고 양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초창기 여성 복식 디자이너들의 양장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패션교육기관인 국제복장학원의 설립자 최경자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가시는 따님 신혜순 선생님의 양장도 선보입니다. 초창기 여성 디자이너이신 백희득(크리스티나), 이신우(오리지널리), 박윤정(미스박테일러)의 작품 외에 명동 시대의 여성복들도 골라보았습니다.

경운박물관의 복식 재현팀은 그 연구에 대한 열정과 숨씨가 탁월합니다. 이번에 ‘복식재현기금’을 희사해주신 분의 의견에 따라 대한제국 시기의 단령을 재현했습니다. 로비에는 재현 복식 두 점과 보자기류를 전시합니다. 전시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기증 유물들을 전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경운박물관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봉사와 기증입니다. 2003년 4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박물관의 기획, 전시, 운영은 동문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600여 점으로 시작된 수장고의 유물은 이제 10,500여 점에 이릅니다. 고맙게도 유물 기증은 동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운박물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전시를 시작하며

함 순 섭 국립대구박물관 관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올해도 경운박물관과 함께합니다. 국립대구 박물관과 경운박물관 공동으로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운박물관은 복식자료의 기증과 전시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번 네 번째 기증전시는 2018년 이후 기증된 4,500여 점의 자료에서 200여 점을 선별하여 선보입니다. 최경자 디자이너를 비롯한 1세대 디자이너의 여성복, 이현정과 이영희 디자이너의 근대 한복 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양장을 받아들인 지 근 100여 년이 지나며, 알게 모르게 한복에는 양장의 특징들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들은 입체적 패턴과 양장의 스타일을 한복에 과감히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옷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 잡는 데 디자이너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이번 경운박물관과의 공동 전시는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더불어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바라보고, 앞으로도 중요한 복식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2020년부터 경운박물관을 비롯하여 대구섬유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자연염색박물관, 코리아나화장박물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복식문화 특성화 박물관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육군박물관과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정영양자수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이 새로 참여하여 우리 박물관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복식문화 협의체의 첫 사업은 경운박물관과 함께 하는 이번 공동기획 전시입니다. 앞으로도 협의체의 공동사업은 더욱 알차고 활발할 것인데, 특히 축적한 복식문화의 학술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겁니다. 이번 전시와 복식문화 협의체를 위해 애써주신 장경수 경운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의 역사가 담기다

서진강 36회	14
김윤수 39회	17
이경희 41회	18
심재완 43회	21
신혜순 46회	24
김수자 46회	26
김민자 48회	27
윤호미 48회	28
박영숙 49회	32

자랑스러운 남편의 예복

나의 남편, 정일영(1926~2015)박사는 1951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영국 런던대학교를 거쳐 1959년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960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냈다. 우리는 1948년 남편의 대학교 졸업 전에 결혼하였다. 결혼 후에 바로 6.25전쟁을 겪었고 나는 살림과 세 딸의 육아로 남편의 유학 생활은 함께 하지 못했다.

1962년에 남편이 주 프랑스 대한민국 공사로 발령을 받아 가족이 함께 외국에 갈 수 있었기에 우리 가족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나라! 프랑스는 모든 것이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다.

프랑스로 가기 전에 이번에 기증한 남편의 예복들과 실크 모자 등 일습을 준비하고,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부인으로서 그곳에서 만찬 등 각 의식에 맞는 한복 십여 벌을 마련했다.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 코리아를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나는 우리나라를 알리고 소개

할 사명감을 갖고 우리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가구들과 집을 장식할 병풍, 자개 장식품, 그림, 특히 겸재 정선과 표암 강세황의 고화 등을 갖추었다. 관저로 외국인들을 초대할 때 우리 고유의 은수저, 신선로, 은주전자, 구절판 등 식기류에 여러가지 한식을 준비하여 보기 좋고 맛도 있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최전방에 있는 외교관의 안주인으로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



대학생이 된 큰 딸, 둘째, 그리고 막내.
파티 참석하러 가기 전 관저에서, 스위스 베른 1970년



실크햇(Silk Hat), 1960-70년대



모닝코트(Morning Coat), 1960-70년대

주재국에서는 오찬, 만찬 등의 의식에 참석할 초대장에 그날 입어야 하는 예복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전통 한복을 상황에 맞추어 색깔을 골라서 입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화려한 드레스에 비해 늘 우리의 한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다.

1966년에서 1971년까지 주 스위스 대사로 재임할 때에는 오스트리아와 로마 교황청 대사를 겸임하게 되었다. 당시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러 로마에 갔을 때의 일이다. 교황은 정일영 대사에게 자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일영 대사는 대한민국에 천주교인들이 다수 있으나 한국 추기경이 아직 없으니 추기경을 임명해 주십사고 말씀드렸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이어 1969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김수환 대주교를 대한민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임명하였고 대사로서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주 벨기에 대사, 주 프랑스 대사를 역임하고 남편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초대원장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9-10대 국회의원, 국민대학교 총장 등 나라의 성실한 일꾼으로서 훈장과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나는 일제 강점기에 여고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는 바느질, 자수, 뜨개질 등을 학교에서 배웠다. 해방될 당시 경기여고생들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있던 장소에서 일본 군인들의 군복을 수선하고 있을 때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함께 있던 친구들과 함성을 지르며 만세를 외치던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자수에 취미가 좀 있어서 결혼 준비로 겨울용 여름용 상보, 베갯잇 등을 만들었다. 누비 한복 일습은 외손자 며느리가 시집올 때 할머니 예단으로 보낸 귀한 옷들이다.

내 나이 아흔이 넘어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남편의 역사가 담긴 예복과 함께 내가 직접 수놓은 혼수품 등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경기여고와 경운박물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윤수 39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Ⅳ

친정어머님의 솜씨



컵받침 (앞·뒤)

친정어머니 솜씨이다.

홍색과 연두색 문단 직물에 모란, 국화, 나비를 수놓았다.
2018년 7, 8월 두차례에 걸쳐 114점을 기증하였다.



원피스, 1989년 제조

모직이며 더블 버튼과 허리 주름이 특징이다.
미스박테일러, 박윤정(38회) 작품이다.



A-line 원피스, 1980년대

깔깔이 걸감에 데트론 안감을 뒀다.
큰 주름이 앞뒤로 3개씩 잡힌 A-line 원피스이다.
미스박테일러, 박윤정(38회) 작품이다.

그 해 겨울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가 지으신 명주 바지저고리와 마고자

아버지의 연한 아이보리색 명주 바지저고리와 노란 호박 단추 두 개가 달렸던 그리 진하지 않은 회색 마고자는 67년 동안 혼수로 해 오신 어머니의 예쁜 반단이 깊은 곳에 고이 보자기에 싸여 있었다.

아버지는 1951년 1.4후퇴 때 젊고도 젊은 날 이 세상을 떠나시었다. 아깝고도 아까운 삶이었다. 높은 이상을 품고 역사교사로서 펼쳐갈 꿈이 얼마나 크시었을까. 나는 그때 15세 경기여고 4학년, 세 살씩 터울인 남동생 넷과 엄격하신 어머니와 웅기종기 소박한 집안 형편에서 반듯하고 평화로운 교육자의 가정에서 미래의 꿈나무들로 자라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듯한 충격과 허무와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 놓았다. 누가 그랬던가...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이라고... 참으로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은 아무 예고도 없이 혼자서 잘도 달려가고 있었다.



부친



이경희(좌)와 모친(우)



저고리, 1930~40년대



마고자, 1930~40년대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생 때 겨울방학이 되면 천자문千字文을 가르쳐 주셨다.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놀기를 좋아했고 특히 내가 남동생을 넷이나 보았다고 고명딸인 나를 복둥이라고 집안에서 예뻐하셨다. 명주 바지저고리와 마고자를 입으시고 나를 무릎에 앉히셔서 천자문 책을 펼쳐놓고 한 자 한 자 짚어가며 하늘 천天, 땅 지地, 김을 현玄, 누를 황黃, 하며 가르치셨다.

예쁜 색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어스어스 가윗밥을 내어서 한 줄 한 줄 다 읽고 외우면 가윗밥 낸 부분을 하나 뒤로 접어놓으시니, 그때 세모진 모양이 되는데 하도 신기하고 재미가 나서 열심히 읽고 가락을 넣어 노래하듯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몸으로 어른거려온다. 아버지의 무릎에 안겨 명주 섬유의 보드라움, 한복의 여유로움, 그 촉감을 넘어 포근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던 그 겨울들... 지금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기억이다.

아버지의 명주 바지저고리를 지으시는 어머니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랐다. 한복은 특히 모든 부분을 잘 뜯어서 재생을 할 때 깃, 섹, 소매, 고름, 몸 부분 등을 잘 빨아 축축할 때 손 다듬이를 한 다음, 옥양목에 싸서 다듬잇돌에 놓고 방망이로 다듬이를 한 후 고루고루 모양을 잘 잡아 흠질을 하고 목화솜을 고루 잘 펴서 골고루 놓고 솜이 옷감과 떨어지지 않도록 부분부분 흠질하여 조물조물 오무려 뒤집으면 저고리와 바지가 모양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고도 아름다웠던 그 정경이 화안히 떠오르네요. 바지는 묘하게도 기하학적인 대각선을 이루어 그 모양을 갖추어 가는데 그 놀라움이 지금도 머리에 짝 차오릅니다.



자켓, 1990년대, 안휘가로 作



스커트, 1990년대, 안휘가로 作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해가는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손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던 기억도 생생하구요. 어머니의 손은 보드라우실 수가 없는 삶의 훈장이지요. 행여나 명주 올에 흠이 갈세라,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얼룩이 질세라, 정성을 다하시는 그 일념, 남편인 지아비의 따뜻한 옷을 지으시는 그 사랑의 과정, 그 자체가 생활 속에 스며서 모범이 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다는 것이 새삼 깊이깊이 느껴져 오네요. 경운박물관에 기증한 어머니가 혼수로 해오신 아버지 마고자에는 호박 단추 대신 고름을 달아 묶게 하였다. 축 늘어져서 자칫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마고자 단추 대신 양증맞은 작은 고름 두 개를 달은 실용성에서 새삼 어머니의 재치를 엿볼 수 있어 더욱 그리워집니다.

어머니는 서른아홉에 홀로 되시어 그 후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는 칠십여 성상 가까이 여성을 초월하여 오로지 모성으로서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초인적인 힘으로 오남매를 껴안으시고 밤낮없이 삶을 엮어 나가셨다. 하느님은 두 분의 신을 만드실 수가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머니’, 그 이름은 신앙이라고 나는 믿는다. 1949년 여름인가에 학부형 회의 때 어머니께서 모시 치마저고리를 곱게 입으시고 광화문 모교 교정 느티나무 아래에 서 계셨던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머니 모습이셨다.

2017년 가을 어머니는 한 세기 하고도 다섯 해를 사시고 선종하시었다. 오래 생각한 일이어서 어머니 유품들을 모교 박물관에 드리고 싶어 전화로 그 뜻을 전하니, 박경자 부관장님께서 제 아파트에 여러 차례 오셔서 거의 모든 유품들을 드리게 되니 친정에 맡긴 듯이 더없이 마음 든든하며 안심됩니다.

숙부님의 결혼선물, 코트

나는 2021년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품 중에서 70여 점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조상님의 유서 깊은 유물이거나 기념비적인 물건이 아니다. 1959년에 결혼한 내가 결혼생활 동안 갖고 있던 물건들이고 주로 의류, 그것도 남성복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1959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4월에 해군 군인과 결혼을 하였다. 어머니는 온갖 정성을 다 하여 내 혼수를 마련해 주셨다. 6.25 동란 중에 아버지가 북으로 납치되었으니 어머니로서는 그럴 만도 하셨다. 열다섯에 아버지를 잃은 딸이 장성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남편 없이 치르는 혼례에 어머니는 당신 전부를 내놓으신다는 마음이었으리라.

아버지가 납북된 이래 어머니는 할머니, 남동생과 나를 데리고 당시 종로에서 송옥 양장점을 운영하시던 숙부님 댁에 합가하여 평생을 함께 사셨다. 숙모님(오송죽)은 양장점 일을 하시면서도 11명의 자녀를 낳으셨다. 거기에 우리 남매까지 합세하였으니 아이가 13명이나 되었다.



결혼식, 1959년 4월

당시는 기성복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맞춤 양장의 전성기였다. 송옥 양장점은 종로에서 명동 한복판으로 옮겨 사업을 확장하였다. 여학생 교복까지 맞춤복으로 했으니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숙모님은 양장점 운영에 집중하였다. 자연스럽게 스무 명이나 되는 대식구의 살림은 어머니 휘하에 있었다. 13명의 아이들 중에 내가 맏이었다. 첫 혼사였으니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혼수를 준비하셨다.



코트, 1958년

부군 오윤경(吳尹卿, 1928년생,
한국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중장 역임)
유품이다. 코트는 송옥 양장점의 작품이며
코트 깃 안쪽에 부군의 성함을 수놓았다.



구두와 지팡이, 1960-70년대

결혼 초부터 우리는 집이 없이 해군 관사에 살았다. 남편은 해군참모차장을 지냈고 퇴직하고는 외교관으로 발령받아서 주 우루과이 대사를 역임했다. 근무지를 따라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혼수가 짐스러워 문밖에 버리고 다녔다. 안성유기 방짜 일습도 혼수품목이었다. 칠첩 반상기는 물론, 남녀 낫요강, 낫 둥근상, 대야, 국자 등 유기제품을 담은 대나무 큰 께짝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무겁게 채워서 문밖에 버렸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던 것은 남편의 옷가지였다. 1958년 숙부님은 조카사위 감을 맞으면서 송옥 양장점에서 영국 홈스펀 직물로 코트를 해주셨는데 아끼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행사에 입었던 예복 일절, 모자와 스틱, 핀과 기타 부품 등을 기증하였다. 나의 두루마기 2점도 첨가하였는데 홍색 나비 문양과 하늘색 대나무 문양의 비단은 견직물의 견본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귀하다는 소견이었다. 당시는 혼수품을 수제 고리짝에 넣어서 운반하였는데 어머니는 특별히 대형 알루미늄 함에 넣어 보내시어 그 함도 함께 기증하였다.

이 글을 쓰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전율하게 된다. 11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신 숙부님 내외분이다. 형님의 자녀인 우리 남매까지 거두어 13명의 아이들이 자란 가정, 이 가정의 풍경을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 13명의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1인당 100불 시대의 우리 경제를 오늘날 3만불이 넘는 경제부국으로 만든 동량의 몫을 한 사실이다. 인구가 부국의 기초임은 엄연한 사실일진데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린 현실이 심히 걱정스럽다. 조상님의 유품에서 우리의 얼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일도 뜻깊겠지만 무형의 풍습 가치에도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해군 중장 계급장, 1970년대



한국 함대사령관 시절 받은 커프스 버튼(Cuffs Button)

앞서 걸어갔던 바느질쟁이, 하늘을 뚫은 일념

어머니(최경자 1911~2010, 국제패션디자인학원 명예이사장)를 아는 분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일에만 열중하시는 것을 염려하여 “이제는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고 좀 편안히 쉬시지요...”라고 권유하기를 여러 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으레 “그러기는 해야겠는데...”라면서 말꼬리를 흐리고 미소로 넘기면서 이내 또 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어머니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분이시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셨던 분이다. 패션계에 몸을 담으셨던 80여 년 동안 을 한결같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음 일을 계획하면서 일 속에 파묻히고, 그렇게 어머니는 일의 모든 과정을 사랑하며 그 과정 속에서 보람을 영어로 가셨다.

여섯 식구를 보살피고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주부로서, 또 천직인 양장의 명맥을 이어가는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서, 어머니의 길은 험하기 짝이 없었다. 유학 시절 고향집에 화재가 나서 귀국해야 했을 때에도 피아노를 팔아 재봉틀을 사셨고,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대구로 피난을 갔을 때에도 모두가 기피하던 흥가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국제양장사’를 운영하시는 등 그 맥을 이어간 어머니는 ‘칠전팔기’ 그 자체이셨다. 어머니는 역경에 처할수록 기적 같은 힘이 솟으시는 것 같았다.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원장 재직 시절 이사장인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서 기념 촬영, 1985년 8월



벨벳슈트(Velvet Suit), 1980년대, 최경자 作



모직 슈트(Wool Suit), 1980년대, 최경자 作

아마도 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왔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곁에서 새겨놓은 크고 작은 발자취는 결코 신기한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어머니가 일념을 가지고 실천력을 발휘했을 때 그 문은 열렸고 믿는 그 자세에 은혜가 깃든 것이었다.

불모지였던 한국 패션계에서 단순한 바느질쟁이가 아닌 패션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는 어머니의 일념을 허황된 꿈이라 치부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 최초로 전문적인 패션 교육 기관인 국제복장학원을 창립하고, 모델 스쿨을 만들고, 패션전문잡지를 창간하는 등 선구자의 길을 개척할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난관도 있었지만 그들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시 「정전반수충천심 庭前半樹衝天心 암하세천달해의 巖下細泉達海意 - 뜰 앞의 작은 나무도 자라서 하늘을 찌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위 밑에 흐르는 작은 샘물도 흘러서 바다에 이를 뜻을 가지고 있다」를 좌우명으로 삼아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우물을 파는 외길’을 걸어오셨던 것이다.

어머니는 서양의 의복인 양장을 디자인하면서도 한국의 미를 중요시하셔서 한국적인 소재나 모양들을 접목한 스타일을 창조해내셨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작품들을 볼 때마다 나의 선배 디자이너인 어머니가 자랑스롭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패션계에서 이루신 업적을 이번 경운박물관의 기증전을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경자 디자이너의 코트드레스

1963년 약혼 후 1964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동기였던 신혜순의 어머니이신 최경자 디자이너와 연결되어 1963년 혼수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양단, 레이스, 목수 등 옷감으로 여러 벌의 일상복과 파티복 등을 준비해갔다. 다른 옷들은 입었는데 화려한 빨간 색의 코트드레스는 유학생 신분의 입장에서 별로 입을 기회가 없었다. 며느리가 이 옷을 탐내는데도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기증을 결정하였다.

나는 테네시 대학교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세종대학교에 재직하였고 1979년부터는 경희대학교 이과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2005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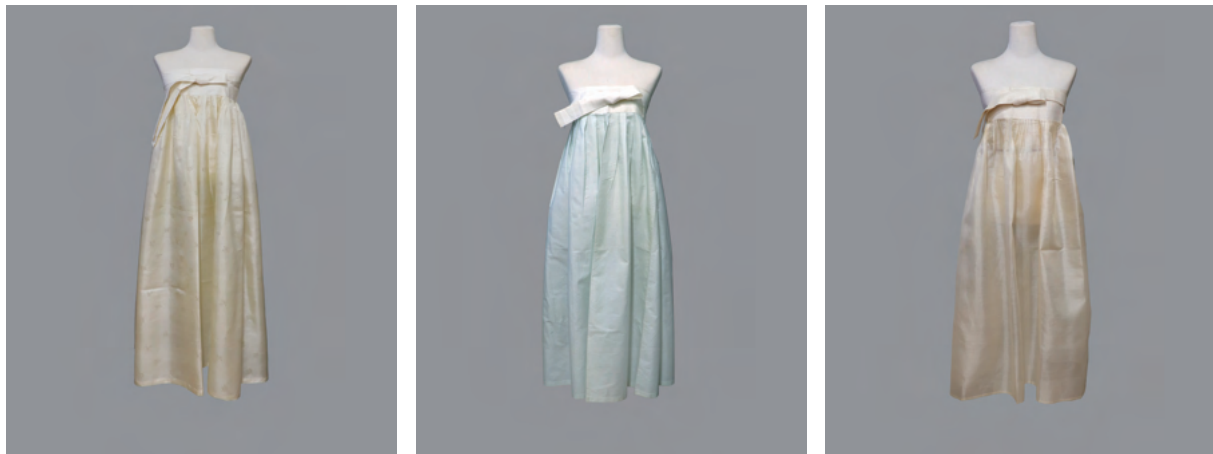
코트드레스(Coat Dress), 1963년, 최경자 作

기품 있는 어머니 치마

2002년 겨울 90세로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몇번이나 놀랐습니다. 70여 년 전 혼수로 해오신 고쟁이, 누비 단속곳, 속치마 등 속옷들과 한번도 입지 않은 치마저고리 등이 철 트렁크에 잘 개켜져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들을 6.25동란 때 어디에 숨겨 놓으셨기에 이렇게 압전히 보관이 되었는지 여쭙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한복을 곱게 입으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는 어머니가 해드리는 한복을 즐겨 입으셨지요.

딸들의 모교 박물관에 당신의 혼수품과 손수 만드신 치마 등이 전시된 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하면서 어머니가 한없이 보고 싶어집니다.



치마

하브다이 뉴동, 서양목, 5쪽항라 치마로 기증자 친정어머니가 손수 장만하셨던 혼수이다.
무늬가 다문다문 있는 하브다이 뉴동 바닥은 명주와 같은 평직이며 무늬는 주자직이다.
주로 일본에서 생산된 직물로 얇고 하늘하늘한 질감으로 치마저고리, 속옷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서양목은 개항기 이후 서양에서 수입된 고급 면직물로 옥양목이나 포플린보다 고운 옷감으로
다듬이질을 하면 윤이 나고 가벼워서 치마를 하면 태가 난다.

옷의 추억이 행복을 안겨주네

벌써 오래 전, 동서 냉전의 막바지 시절 한국인에겐 금단의 지역이던 공산권 불가리아에 취재하러 들어갔을 때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곳에서 열린 IOC총회에 한국기자 입국이 허용된 것, 당시 조선일보 파리특파원으로 근무했던 나는 취재단 일원으로 참가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공산권 사회 엿보기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뭐 좀 물어도 될까요?”

회의 틈틈이 수도 소피아를 벗어나 지방 도시들을 찾아다녔는데 옛 로마유적지를 돌아볼 때였다. 한 중년의 서양 여성이 멀리서 걸어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함께 다녔던 한국 취재단 4,5명 특파원들이 모두 긴장해 내 주변에 몰려들었다. 당시로선 한국 기자가 공산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고 더구나 그곳 현장취재는 무슨 첩보 활동하듯 위험한 일로 조심하던 때였기에 현지인과의 접촉에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저기 관광버스에 타고 있는 독일관광단 일행인데 대표로 당신한테 물어볼게 있어서...”

나는 더욱 놀라서 그 여성을 쳐다만 봤다.



디자이너의 추상화 작품이 프린트된 이신우 디자인 실크 누비 재킷과 주름 스커트. 치마 앞 한 겹을 젖히면 이신우 그림판이 나타나는 랩 스타일. 불가리아 민속품 빨간 매트를 머플러로 둘렀다. 1985년 가을 불가리아 소피아 교외 로마 유적지에서.

“일행들이 모두 물어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당신 지금 입은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 혹시 이곳에서 산 것입니까?”

어머나!--- 뺨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속으로는 잔뜩 긴장했던 터라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러나 그 물음이 너무나 의외여서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옆의 동료 기자들까지 빙긋이 웃음을 참는 표정들이었다.

“옷이 너무 멋있어요. 저기 버스 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아 이건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나는 으스스대듯 대답해줬고 그 여성은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나 옷이 정말 아름답다고 여러 번 감탄하고 돌아갔다.

옷의 추억.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가볍지 않은 삶의 한 장으로 새겨진다. 그것도 대부분 즐거운, 좋은 기억들이기에 때로는 상당한 위안을 안겨주기까지 한다.



누비자켓과 스커트, 오리지널리 작

불가리아에서 입었던 그 옷도 그 중의 하나. 디자이너 오리지널리 이신우(48회)의 그림이 프린트된 실크 누비 재킷과 주름스커트. ‘선창가’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어있어 첫눈에 반해 산 옷이다. 나에게 어울리고 아니고를 떠나 그냥 멋져서 충동 구매한 기성복인데 묘하게도 입을 때마다 혼자 기분이 좋아지는 그야말로 좋은 인연의 평생 옷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이 옷은 남들로부터도 칭찬 정말 많이 받았다. 한두 해가 아닌 지난 2,30년간 어디 모임에 입고 갔을 때 거의 빠짐없이 “옷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유행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랄까. 나 혼자 생각이지만 디자이너 이신우의 최고 걸작 중의 하나로 꼽고 싶다.

1990년대 일본 도쿄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 1931년생)씨를 인터뷰했을 때도 잊을 수 없다. 이 옷을 입고 갔는데 그의 사무실 벽 장식이 멋있다고 말하자 “나는 당신



원피스드레스, 1988년, 오리지널리 작



제주에서 열린 88서울올림픽 성화 도착 행사에 성화를 들고 온 그리스의 올림픽 성화 채화 수석 여사제 카테리나 디다스칼루(Katerina Didaskalou)와 함께. 1988년 8월27일

옷이 더 멋있는데요?” 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취재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칭찬만은 여태껏 생생하다. 아마도 내가 지금껏 입어왔던 모든 옷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즐겼고 가장 많이 칭찬받아 그때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 옷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 옷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일생에서 얼마나 많았던가. 어릴 땐 때때옷 명절빔이 가슴 뛰게 했는데 어른이 되어선 입는 즐거움 못지않게 칭찬받는 순간들이 나를 환하게 만들어주었다. 뿐인가, 그 기억들을 불러낼 때면 새삼 아름답게 피어나 또 한 번 행복을 맛보게도 해준다.

30여 년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바빴던 나의 황금기로 꼽는 88서울 올림픽.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종종거렸던 순간들이 그림처럼 박혀있는데 “아, 그 옷!” 즐겁게 떠오르는 ‘옷의 추억’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기하학적 무늬의 갈색 톤 원피스다. 하얀 요크가 가슴과 어깨까지 넓게 붙어있어 나에겐 좀 튀는 스타일이지만 이신우 디자이너가 적극 추천하는 바람에 마련했던 옷이다.

걸어놓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가 마침 올림픽 성화 도착식 행사에 가면서 이 옷을 입었다. 멀리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하루 나들이여서 바지 정장보다 폭넓은 원피스가 무난할 것 같아 선택했는데 하얀 어깨 장식이 영 어색하게 느껴져 공항에서부터 옷 잘못 입고 나왔구나 하고 후회

하고 있었다. 게다가 비행기 옆자리에 커다란 하얀 깃 정장으로 유명한 한 여성단체장이 역시 그 빛나는 옷차림으로 앉아계셔서 어쿠! 저절로 어깨를 움츠리게 됐다. 그런데 “어! 옷 멋있네요. 프랑스 패션인가요?” 그분은 다정하게 옷 칭찬부터 해 주셨다. 갑자기 내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인사 치레로 던진 한마디가 이렇게 기분을 달래줄 수 있다니...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놀랍게도 나는 이날 빗속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기분 좋게 어울리며 이 원피스가 괜히 자랑스러워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다. 좋은 기억이다. 칭찬의 힘. 나도 남들에게 옷 칭찬 많이 해야지, 그때 배웠다.

그날 올림픽 성화를 들고 제주도로 날아온 그리스의 성화 채화식 수석 여사제도 나와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살짝 “옷 예뻐요” 속삭였다. 어색함을 지우려는 “뷰티풀!” 인사였겠지만 그러나 나에게겐 잊혀지지 않는 옷의 추억이 됐다. 내가 그날 움츠리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자신 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입는 옷은 아름다운 칭찬을 불러온다!



자켓, 오리지널리 작



자켓, 오리지널리 작

상아 못으로 만든 상자 속 사랑의 향기

오늘은 날이 참 화창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진 이후로 나는 아침에 가볍게 운동을 하고 소파에 앉아 꽃을 보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습관이 생겼다. 꽃이 다 진 난에서 연약한 한줄기가 나와 다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뒤창에 버려져 있던 화분을 날이 추워져 다시 들여놓았더니 작은 분홍 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향기를 맡는다.

오늘은 친한 후배가 재스민 화분을 들고 찾아왔다. 어찌나 향기가 좋던지 온 집안이 꽃향기로 가득했다. 선배님은 어쩔 이렇게 예쁜 소품이 많으시냐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운박물관이라 하였고 글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글을 잘 쓸 줄 모르는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후배와 나눈 옛 추억을 꺼내어 보고자 한다.

이화여대 사학과 재학 시절 나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이 생기면 종종 인사동에 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옛날 것들을 보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다. 인사동을 걸으며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무작정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묻고, 옛날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신기해했다.

옛 서민 여자들이 썼다는 뒤꽂이 장식품도 사고 옛 여인들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썼다는 은장도, 예쁜 노리개, 비녀 등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싼 것만 있으면 그냥 샀다. 어느 날 인사동에서 미술

전이 있던 날 미술전을 보고 나서 어느 날과 같이 슬슬 걸었고, 가게에 걸려 있는 민화를 몇 점 사서 옆 가구점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다. 그냥 보잘 것없이 보이는 나무 상자였는데 옛사람들이 흔히 나무못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상아를 못 대신 사용한 특이한 상자였다. 마치 그 상자가 “나를 데려가주세요”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어찌나 소중한 보이던지 그냥 얼른 데리고 나왔다. 나는 결혼을 하고 내가 좋아하



자수보자기, 1930~40년대

는 고가구를 모았고 그동안 모았던 소품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 나무 상자를 고가구 위에 두고 오며 가며 보곤 했다. 그러다 사는 삶이 고되고 하루 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먼지도 자주 털어주지 못하고 점점 잊혀져 갔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리고 혼자가 된 어느 날 문득 그 상자가 내 눈에 들어왔고 다시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 상자를 열어보니 시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밥상보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니 어머니를 보내 드리고 깨끗이 세탁을 해서 넣어두었던 기억이 났다. 오랜 시간에 색깔이 바래고 깨끗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거기서 어머니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유난히 말수가 적으셨던 어머니는 내 남편이 6살 때 홀로 되시고 두 딸과 아들을 키우시느라 샅바느질을 하셨다고 한다. 남편이 내가 바느질만 하면 하지 말라며 화를 내던 이유도 그 때문인지 처음엔 몰랐었다. 남편이 어릴 때 가난 때문에 쌀독에 쌀이 떨어질까 봐 친구도 집에 데려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너무나 부유하게 자란 나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그런 가난에도 샅바느질을 하시며 아들을 고시 양과에 합격시키시고, 책 읽기를 즐겨 하시던 어머니는 약사 자격증까지 따내셔서 약국을 운영하셨다. 그즈음에 내가 며느리가 되었다. 어머니의 고생 덕에 아들은 성공을 했고 장한 어머니상도 받으셨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힘이 많이 빠지신 어느 날 손수 만드셨다며 나에게 밥상보를 건네주시던 자그마한 체구에 조그만 손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나무상자에서 밥상보를 꺼내 펼쳐보니 그 작은 손으로 만들어 주시던 맛있는 음식들, 여름이면 그 좋아하시던 수박을 드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식탁보 위에 그려진다. 무뚝뚝하셨던 시어머님이 마지막 고이 잠드시던 모습에서 나는 평생 ‘천상여자’이셨던 모성애의 향기를 맡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의 향기는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는 것 같다. 문득 우리 집의 꽃향기를 느끼며 생각했다. 지금 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겨줄 수 있을까. 경기여고 충동창회 총회를 가면 경운박물관을 열어주시고 작품들을 구경할 기회를 마련해주셨고 나는 몇 년 전 민화 몇 점을 기증했다. 나에게는 나의 젊음과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작은 추억이지만 경운박물관에 놓여진다면 우리 여성들의 삶의 향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 경운박물관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고대 선조들의 노력과 사랑이 전달되는 장소로 변창하길 기도드립니다.



목제 상아감잡이 함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하다

김영희 50회	36
박성희 50회	38
강영자 52회	40
김종진 53회	42
김경애 54회	44
김옥자 54회	48
이경희 54회	50
이송리 54회	54
전경의 54회	56

크리스티나 양장점을 아시나요?

1966년 그해는 나의 일생 중 가장 변화가 많았던 해라는 걸 반세기가 넘어 새삼 되돌아본다. 2월 대학 졸업식이 끝나자 바로 약혼, 결혼하고 4개월 시댁에서 살면서 대가족들과 낮을 익힌 후 8월에 신랑과 함께 뉴욕으로 떠났으니 실로 놀라운 발전을 한 셈이다. 신촌 학교 앞 다방도 별로 가본 적 없이 학교와 집을 오가던 시절이었다. 인심 좋은 교수님이 “휴강이다~” 하시면 친구들과 기분 낸다며 고작 워커힐(1963년 호텔로 개관) 뒷산으로 가서 졸업 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보고 이야 기꽃을 피우다 곧장 집으로 오는 답답한 범생이었던 나였기에 그해의 8개월은 엄청난 문화적 충격 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벅찬 시기였다.

결혼과 미국행을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약혼, 결혼 드레스 등 모든 옷 들을 명동에 있는 크리스티나 양장점에서 맞추었다. 그 시대 유행하던 실크, 노방, 불망(불란서 망 사, 요즈음의 레이스 옷감) 등으로 앙상블, 쓰리피스를 여러 벌 마련했다.



크리스티나 양장점은 나의 외숙 모님이시자 경기여고 24회 대 선배님이신 백희득 여사가 운영 하시던 양장점이다. 나의 사촌 인 김선규(50회), 김순규(51회) 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세계 적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 가의 큰 누님이시기도 한 외숙모 님은 사십 중반에 파리로 가서서 패션을 공부하고 오신 디자이너 였다. 기성복이 없던 시대이니 대학 입학식부터 입고 다녔던 청

약혼복(앞·뒤), 1966년, 크리스티나 양장점 作

록색 봄 코트며 블라우스까지 다 맞춤이었다. 그러니 약혼, 결혼 드레스도 자연스럽게 함께 의논하며 디자인했다.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랬다. 미국 가면 이런 정장을 입을 일이 많을 줄 알았고 옷이라도 안 빠지게 입어야 코리아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첫아들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었던 뉴욕 생활 3년, 한 번도 입어 보지 못한 새 옷들을 이삿짐에 넣으면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만이 남는다.

요즈음의 세련되고 화려한 드레스에 익숙해진 눈으로 그때의 약혼 드레스를 보니 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양에선 할머니나 어머니가 입었던 드레스를 딸, 손녀 대에까지 물려 입는다는 멋진 스토리를 들곤 한다. 우리나라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요즈음에도 5, 60년 전 할머니 드레스를 입겠다는 손녀딸이 있을까? 기증전에 전시된 내 약혼 드레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참신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만들어 입는 젊은이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이 글을 쓰면서 옛날 앨범을 천천히 넘겨본다. 사진 속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시부모님, 오래전에 가신 분들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어진다.



자켓과 원피스,
1966년, 크리스티나 양장점 作



코트와 원피스,
1966년, 크리스티나 양장점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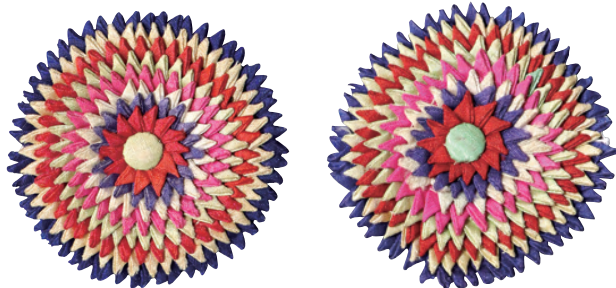
라일락 향기가 퍼지던 후원

25살의 봄이었다. 약혼 후 막 결혼한 때였다. 1년 정도 같이 살아야 시집 식구들과 한 식구가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신혼여행 후 시댁 사랑채로 들어가 살았다.

아침 식사 후 아버님을 비롯하여 남편과 시동생 둘, 시누이 둘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나면 집에는 어머님과 일하는 아주머니와 나만 남게 된다. 이때 쫓이면 어머님이 대청에서 커피 준비를 해놓고 건너오라 부르셨다. 커피와 간식을 즐기면서 대대로 집안 분들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는 귀담아 듣고 있었다.

한창 봄날, 대청의 뒷문을 열면 후원이다. 이때 산들바람에 실려 오는 라일락 향기! 달콤하고 알싸한 연보라색 꽃! 나는 완벽한 평화로움과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윗대 분들의 지난날들을 상상하며 호기심 있게 들었다. 다음 해 조금 떨어진 곳에 살림을 따로나게 해주셨고 첫째를 낳았다. 그 후 둘째와 셋째도 낳았다. 어느 날 시댁에 가니 어머님께서 장롱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보통이를 꺼내셨다. “아범의 돌복이니 이제는 네가 맡아라” 하시며 건네셨다.

어머님은 평양 서문여고를 졸업하시고 동경에서 학습원을 다니시던 중 양가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집으로 돌아와 결혼하셨다 한다. 어머님의 친정아버지께서는 동경제국대 의학부를 나오시고 평양에서 순천병원이라는 당시에 드문 서양의원을 하셨고 부유하셔서 항상 침모를 따로 데리고 사셨다 한다.



베갯모, 1930-40년대

어머님은 친정에 가서 아들을 낳았고 아이가 자라는데 맞추어 침모가 가지가지 옷을 해주었다고 한다. 특별히 돌옷 일습을 만들어 보내주어 입혔으며 그 후로 잘 보관하고 계셨다고 했다.



남아 색동저고리, 1940년

어머님은 시집을 때 많은 이부자리와 한복들, 각색으로 물들인 다듬이질로 매끄럽게 손질한 무명과 광목들도 몇 필씩 가져오셨는데 피난 갈 때는 남은 것들을 가져가셨다. 특히 어머님은 옛날식의 바느질법, 반듯한 이부자리, 가벼운 목화솜, 다듬이질로 손질하는 전통방법들을 귀히 다루고 계셨다. 부지런하시고 절약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누리며 사셨다.

나는 결혼하여 어머님을 뵈고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분의 아들과 며느리인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꼈고 88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을 따르며 살았다.

이제 내 나이 79살, 봄날이 가까운데, 시원한 대청마루와 후원에서 불어오던 라일락 향기와 집안을 알아가도록 이야기 해주시던 어머님이 너무나 생각나고 그립다.

어머님이 보관하고 뒤를 이어 내가 보관하여 83년이 된 남편의 돌복들을 우리집에 와서 보고는 전시하겠다는 동기 박경자 부관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남아 별문마고자, 1930-40년대

사랑이 넘치던 아내, 글라라

고등학교가 강영자 글라라를 어찌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약점이 많은 나는 주위 친구들이 “처妻 덕에 산다”고 할 때마다 자존심을 손질해야만 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도시보다 시골살이를 좋아했다. 나도 그녀의 지병持病을 관리하는데 시골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시골집을 지을 때 그녀는 좋아했고 붓글씨 솜씨를 발휘해 상량문上梁文을 써서 대들보 속에 묻었다. 한옥집은 겉모습보다도 그녀가 정성들여 모아 꾸민 내부 집기, 가구 등에서 빛이 났고 그녀가 우리 전통미傳統美에 깊은 애정이 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전통미에 대한 애정은 음식 만들기와 상차림에도 보였는데, 음식 만들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가히 음식 연구가 수준이라고 생각되던 차에 급기야 ‘엄마의 음식노트’라는 전통음식 레시피를 담은 책을 만들게 되었다. 성당 반모임이나 동네 행사 때 선보인 그녀의 음식솜씨는 화제가 되곤 했다.



강영자와 부군 박찬민

학교는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쳤나 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성당 신부님을 사랑했고 교우들을 사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왕래가 바빴다. 그녀는 꽃을 사랑해서 정원은 항상 꽃잔치였다. 그녀는 뒷산 등산을 좋아했고 산에 우거진 수풀과 나무 풀잎 하나하나 모두를 사랑했다. 밭농사를 좋아해서 각종 채소,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상추, 감자, 고구마, 땅콩, 파, 부추, 배추, 무 등 가꾸고 거두어서 나누어 주기 바빴다. 나는 마당쇠 역할로 바빴지만 함께 오순도순 가꾸어가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이런 모든 이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그녀의 지병을 악화시켰다.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에 그녀의 동창 친구

들과 함께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며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박물관에 50여 점의 유품을 기증하였다. 우리 결혼식에 입었던 혼례복, 밀화 노리개, 사주단자, 혼수로 받은 옷감, 내가 사준 오리지널리 원피스, 내가 입던 금단추 달린 한복 일습, 그녀가 음식을 할 때 사용하던 구절판, 과반, 목판, 찬탁과 떡메판이 박물관으로 갔다. 그녀는 한옥에 어울리는 목가구를 열심히 수집하여 반닫이, 서안, 사방탁자 등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장식하였는데 그녀를 다시 떠나 보내는 듯한 심정이었지만 나는 가구들도 아낌없이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돌화로와 청동화로도 같이 보냈다.

내가 혼자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하늘나라의 그녀도 기증전에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 전시된다며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이기도 한다. 마치 떠나간 그녀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듯 전시 날을 기다려 본다.

글 박찬민 부군



찬탁



원피스, 1980년대, 오리지널리 作



원피스, 클라라 作

양가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결혼예물

2018년 봄 동기회 모임으로 자주 동창회관을 드나들던 시기였다. 평소 오래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관해오던 나는 기증전을 하는 박물관 전시를 보던 중에 6.25를 겪어서 검게 변한 알루미늄 함을 발견하였다. 1971년 나의 결혼 때 친정 어머니가 혼수를 담아 보내주신 알루미늄 함은 이보다 깨끗한데... 이런 물건도 박물관에 오면 전시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뻐다. 집수리를 계기로 집 정리를 하며 약혼함, 혼례함, 화문석, 양복갑, 이불 등 여러 점을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다.

4남 3녀 중 오빠 아래 장녀였던 나의 결혼은 우리 집안의 개혼이었다. 친정어머니는 그 당시 최고로 좋은 솜을 선물 받아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이불 여러 채를 지어주셨다. 이부자리를 워낙 많이 해주셔서 그 당시 유행하던 나일론에 화려한 수가 놓인 것을 주로 사용하여 거의 새것처럼 보관된 양단 솜이불 두 채를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요도 있었으면 기증할 수 있었는데 친구가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가져간 뒤였다.



결혼식, 1971년

알루미늄 함에는 많은 한복과 속치마, 고쟁이, 죽으로 묶은 버선 등을 담아주셨다. 당시는 빨간색 자개함이 유행하던 시기라서 약혼함이나 혼례함은 모두 빨간색이었다. 혼례함 속에 들어있던 혼서지와 성혼선언문, 그리고 청홍비단은 쓰는 것이 아니라 해서 남아있어 함께 기증하였다. 왕골 삼단함, 무늬가 큰 돛자리, 자개상도 혼수품이었다.

시집은 4남 1녀의 화목한 가정이었다. 나는 셋째 며느리였는데 위로 두 형님과 시누님 모두 경기여고 선배님들이어서 반가웠다. 당시 시아버님은 진취적이며 가정적인 분으로 가족 사랑이 지극하셨다. 청운동에 있던 시집은 옆의 집을 사서 결혼한 둘째부터 담을 트고 한 울타리에 살도록 하였다. 셋째인 우리가 결혼하자 우리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 나는 결혼하며 바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시부모님의 며느리 사랑, 손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몇 년 후에 동네 한옥을 따로 장만하여 살림을 냈는데 한옥 마루에 어울릴 법한 화문석을 굳이 욕심을 내어 가져왔다가 그것도 함께 기증하게 되었다.

경운박물관에 기증한 물건들은 모두 결혼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특별히 양가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나의 기증으로 귀한 유물이 되어 오래도록 박물관에서 귀히 보관, 전시될 수 있으니 부모님의 사랑에도 보답하게 되어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돌이켜보니 중학교부터 시작된 사진 찍기가 한때는 취미 생활의 수준을 넘어 학교행사의 사진 담당으로 활동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행사를 앨범으로 열심히 정리해 두었다. 아이들 어려서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 것도 시대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박물관에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기증할 생각이며 경운박물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주칠 나전 혼례함, 1971년



화문석, 1971년

중손부에게 남겨주신 물건들 그 소중함을 기억하며

나의 시댁은 울산 김씨로 멀리는 태종의 '형제의 난'에 장성으로 피신한 민씨 할머니를 중시조로 하며 중종 때 인종의 스승으로 호남 유일의 성균관에 문묘 배향된 김인후 선생의 자손으로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집안이다. 그리고 4대 조부께서 성리학자로 규장각에 보존된 몇 권의 저서도 내 시고 정삼품까지 오르신 분이다.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4대 봉제사를 하시며 한 해 11번의 제사를 치르고 계셨는데 시조부께서 돌아가신 후부터는 4대를 합제로 해 8, 9분을 같이 한 번에 모시고있다. 설과 추석 차례와 한 번의 큰 제사로 한 해 세 차례 행사로 세 동서가 정성껏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설, 추석 두 번의 차례는 아우들 각각의 집에서 지내고 기제사에만 대소가 모두 모여야 할 듯 하다.



시조부모님 회갑연, 1961년

나는 시조부님이 귀해 마지않는 만손자의 배우자여서 중손부로 여러 모로 존중 받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는데 삼십여 년 모신 시숙모 조차 섭섭해 하실 때도 있었다. 자리의 책임감 때문인지 나도 집안 대소사를 정성을 다해 받들게 됐다.

해방 후 시조부께서 장남(시부모님) 혼사에 소목 장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느리와 따님을 위해 장롱 두 채를 만들어 주셨다는데 시모님



원삼과 도투락댕기, 1945년

전통적인 혼례용 녹원삼이다. 두록색 화문갑사에 홍색 화문갑사 안감으로 만들었고 소매에 색동과 한삼을 달았다. 깃은 맞깃에 방령형이며 깃과 고름은 자주색에 합임이다. 길이는 전단후장前短後長으로 앞·뒤 길이 차이를 두었다.

동정의 길이가 좌우 동일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동정을 바꿔 달며 잘못 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삼대는 홍색 공단에 금박, 도투락댕기는 검은색 쌍용문갑사에 금박을 찍고 석옹황과 매미 모양의 자마노로 장식하였다.



은 그 장롱을 돌아가실 때까지 70여 년 간 소중히 갖고 계셨다.

2020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96세로 영면하신 시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손때 묻은 가구며 살림살이 등을 어찌할까 고민이 되었다. 평소에 무심코 봐왔던 장롱을 가까이 보니 나의 일천한 안목으로도 장롱 전면의 조각들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어떻게든 내가 갖고 와 조금 더 감상하며 보존하고 싶었으나 우리 집 식구들은 집이 좁다며 낡은 가구로 치부해버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고 한동안 속을 끓였다.



'수구' 라고 이름을 수놓은 주머니, 1940년대

마침 경운박물관에서 근현대 시기 유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해서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장롱은 내 차지가 되고 나머지 유품들은 박물관으로 가게 됐다.

1974년도에 캐나다로 유학가는 시누이와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의 멋을 자랑하셨던 시조부님의 고운 모시 두루마기와 솜을 넣고 명주 안감을 넣어 지은 검정 두루마기, 시부모님 혼사에 쓰인 원삼과 청 홍 가선을 두른 돗자리, 시부님의 활, 화살과 화살통 등 활쏘기 도구 일습, 시모님의 한복과 갖가지 옷감들, 남편의 이름까지 수놓아진 돌 북 일습, 대나무 살로 짠 차양 발 등이 박물



여아 색동저고리(앞·뒤), 1940년대



가족사진, 뒷줄 오른쪽 두번째가 필자, 2017년

관으로 보내졌다. 크고 작은 오지 항아리 8개도 운 좋게 100주년 기념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작년 여름 매우 더운 날씨에 동기회 배방훈 회장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박물관 관장님과 부관장님을 모시고 왔다. 켜켜이 묵은 먼지 속에서도 관심 있는 물건들을 고르시고 설명도 해주시어 감사했다. 옛사람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맞춤형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비록 서민들의 생활용품이라도 정성을 다해 섬세하게 만들어진 옛 장인들의 숨씨를 보면 감동스럽고 우리 문화의 우월함에 우쭐해지기도 한다.

이번 나의 기증으로 내 청소년 시절을 반짝이도록 이끌어 준 모교에 작은 값음이 되었기를 소망해 본다.

경기 가족상을 받으신 어머니

경운박물관에 몇가지 유물을 기증하면서 2012년 기증전 때를 돌아보게 된다. 대원군 시절에 시택 조상님들이 입으시던 관복의 흉배와 뒤꽂이를 비롯해 외할머님이 입으시던 모피 달린 한복 배자 등을 기증했었다. 금사로 수놓은 흉배는 대원군의 큰아드님인 흥친왕(이재면)이 입으시던 것이다. 남편의 5대 조부님(홍병주)의 따님이 흥친왕과 결혼하신 관계로 몇 가지 유물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기증품 외에도 시택 대대로 소장해 오던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의 유물이 다른 동문들의 기증품과 함께 전시가 되어서 큰 보람을 느꼈었다.

이번에 조선시대 해금과 아이들 한복을 찾아 기증하면서 나의 외할머님이 입으셨던 우아한 한복으로부터의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된다. 1893년 외할아버님은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시어 일본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신교육을 받아들이셨는데 아들 넷에 고명딸로 어머니(이정근 1927년 1월생)를 얻으셨다고 한다. 외할아버님은 1920년에 한성은행 동경지점에 근무하셨고 1926년 조선총독부 보안과에 몇 년간 근무하셨다. 1930년부터 여러 곳의 군수를 지내신 기록도 있다. 1945년 해방되면서 총독부 출신임에도 인성이 고운 외할머님의 내조와 음덕으로 동네 한국인들이 집 주위를 보호해주어 피해를 안 보셨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한다. 정부 수립 후에도 외조부님은 인천 해사국장, 항만청장 등 여러 공직을 거치셨고 초대 서울시 의원을 하시고 1956년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의장을 끝으로 공직과 생을 마감하셨다.



남가주 경운 송년회에서 경기 가족상을 받고,
오른쪽 끝이 필자, 2008년

신교육을 받으신 외할머님은 고명딸인 어머니를 경기고녀에 보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시험 당일 맹장 수술로 시험장에 못 가게 되어 2차인 동덕여고에 입학하셨고 그 당시에도 사교육으로 피아노와 무용을 배우셨다. 졸업 후에 이화여대 가사과로 진학했는데 미군이 이대에 주둔하면서 휴학하게 되어 어른들의 혼담으로 결혼하시게 되었다.



남아 마고자, 1978년



남아 조끼, 1978년

어머니는 딸 셋(옥자 54회, 선자 56회, 경자 64회)을 모두 피아노, 무용과 미술 교육을 받게 하시고 경기여고에 대한 한을 풀듯이 모두 경기여고를 졸업시켰고 음대와 미대를 졸업하게 만드셨다. 경기여고와 미국 남가주 경윤희 총회에서 모교 100주년에 딸 셋 이상 경기여고 보내신 어머니에게 주는 경기가족상으로 꽃다발과 상패를 직접 받으셨으니 어머니는 자식 키운 큰 보람을 느끼셨고 우리는 큰 효도를 한 듯했다.

이번에 기증한 아기 돌복은 45여 년 전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던 것으로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주신 것이다. 신교육을 받으신 외할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안목은 아주 탁월하시어 멋쟁이셨고 아이들의 돌복도 색과 감에서 뛰어난 감각이 엿보인다고 하여 기꺼이 기증하게 되었다.



여아 당의, 1975년

어머니는 96세로 아직은 혼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데 일년 전 스텐트 수술을 받으신 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어 나는 거의 매일 점심을 만들어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 세월을 못 이기시는 어머니를 대하면서 나의 미래 모습을 보는 듯하며 서글픈 마음이 든다. 최고의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식사를 더 드시게 해서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다.

나의 어머니 임화공의 단아한 한복

어머니(임화공 30회, 1924~2018)가 돌아가신 후 정리해야 할 유물들이 많았다. 남기신 유품들을 보니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하셨던 일들에 관한 기록, 출판하셨던 책들, 관계를 맺었던 친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던 도자기들과 평생 입으셨던 옷들이 있었다. 유물을 정리하며 기증할 곳을 고민하던 중 우선 도자기들 중 일부를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고자 박물관 분들과 의논하다 어머님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박물관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한복을 입으셨고 그것도 동네에서 바느질하는 분에게 맡기서 옷을 만들게 하셨다. 옷을 만들 일이 있으면 바느질하는 분이 와서 바느질감을 가지고 가서 옷을 해왔고 한 분에게 맡기면 십여 년씩 그분에게만 맡기셨다. 아마도 어머님이 입으셨던 한복은 서울의 북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한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평생을 사계절 숨을 둔 무명버선을 신으셨다. 한복에 대해서는 가장 편하고 경제적이라 하셨는데 우선 유행도 없고 매번 뜯어서 다시 만들면 새 옷이 된다고 하셨다.



어머님 꽃꽂이 전시회에서, 1980년대 후반



주부생활잡지 기자 촬영, 1970년대 중반



저고리 치마, 모친 임화공 유품

외국에 전시회나 강연 등으로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 항상 한복을 입으시니 짐이 많아졌고 버선을 여유있게 가지고 가시느라 여행 가방에 버선들이 한쪽을 차지했다. 가끔 어머니와 옷감을 사러 종로의 보신주단 등 주단집, 그리고 동대문시장의 포목점을 함께 갔던 기억들이 새롭다.

특별하게 보이지 않던 한복이라 경운박물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편으로는 의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물관에서는 근대의 한복 복식뿐 아니라 직물도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한복에 사용된 직물들의 종류와 문양들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그 시기에 유행하던 직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에 경운박물관에는 300여 점의 한복을 기증하게 되었다.



저고리 치마, 모친 임화공 유품

어머니는 꽃꽂이를 가르치며 많은 제자를 기르셨고 순수한 우리말로 꽃꽂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셨다. 전쟁 이후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절, 여성들은 공적인 교육 이외에 요리나 꽃꽂이, 양재, 편물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꽃꽂이 강의를 하고 동양 꽃꽂이 관련 서적을 일본의 슈휴노토모(主婦の友社)에서 10권을 출판하였는데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 권은 불어로 출판하여 서양 사람들에게도 동양 꽃꽂이를 알렸다. 벌써 오래 전 절판된 책이지만 최근 아마존을 찾아보니 외국에서 중고 책으로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숨저고리와 풍차바지, 1951년

임화공이 1951년 1.4후퇴 전날 밤 암막을 쳐놓고 밤새 만든 큰딸의 숨저고리와 바지이다.

1974년 도자기 가마를 송추에 마련하고 꽃꽃이를 위한 백자를 굽기 시작하였는데 모든 공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소나무 장작을 때서 실제로 제대로 나온 도자기 작품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남기신 백자 도자기의 일부를 경운회와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 후에 한국 여성재단에 백자 도자기를 일부 기증하였다. 그리고 기록물과 사진, 소장품 등은 서울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어머님의 유품을 흔쾌히 받아주신 경운회와 경운박물관에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멀리까지 와주시고 정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경운회 회장단과 장경수 관장님, 박경자 부관장님과 박물관 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모직 슈트(Wool Suit), 1950-60년대, 보오그양장점 作



남성 조끼, 임화공 부군 착용



남성 자켓, 임화공 부군 착용

“혼수 안 해 줄 테니 그걸로 학교가라”

내가 결혼하고 난 후 시댁에서 들은 말 중에 최고로 멋지다고 뽑은 멘트가 이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1899년 황해도 시골에서 태어나신 내 남편의 외할머니 조수조 여사다. 그 외할머니께서 나의 시어머니께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그 할머니께서 입으시던 갓저고리와 배자를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외할머니께서는 1919년생 첫 아들을 시작으로 아들 셋에 딸을 넷 낳으셨다. 어머님은 1924년생으로 첫딸로 태어나셨다. 어머님은 해주에서 소학교를 나오시고 해주여고를 졸업할 즈음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혼수 안 해 줄 테니 그 걸로 학교가라”였다고 하셨다. 사실 당시 고녀를 졸업할 때 즈음에는 모두 시집을 가게 되어 있어서 어머님도 수도 놓고 해서 이런 저런 혼수를 스스로 몇 가지 준비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그걸 찾아들 장가가는데 다 보내 버리시고는 어머님께는 저 말씀으로 하셨다는거다. 그리하여 어머님은 해주에서 경성으로 숙전 기예과(숙명여대 전신)에 유학을 하게 되었다. 외할머니의 교육열로 일곱자녀 모두 대학 졸업에 어머님을 끝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마무리하게 만드셨다.



증손주들과 함께, 2017년

외할머니의 교육열 못지 않게 절약정신에 대한 많고 많은 이야기는 다 늘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특히 외할머니는 옷(한복)의 절약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9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생전을 한복을 입으셨다 한번도 양장을 입으신 것을 본 적이 없다. 거기다 한복을 제대로 된 한복 기본 마름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부분에서 다



털배자, 1930-40년대



갯저고리, 1930-40년대

천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줄여서 아주 절약형 모양으로 입으셨다. 대부분은 손바느질로 만들어 입으시기도 한 것 같고 새 한복을 만들어 드리면 치마폭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길어도 줄이시고 고름은 좁고 짧게 줄이시고 하다 못 해 만질 데가 없으시면 섭이라든 한군데 조각내어 기우셔서 기이한 디자인이 되곤 했다. 딸들은 남 보기 창피하다고 자식들 체면도 좀 생각하라고 하셨건만 끝내 그렇게 몇 벌 안 되는 옷을 입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유일하게 귀하게 남은 것이 양털 갯저고리와 털배자였다. 생전에 겨울옷으로 입을 수 있는 양장이 아닌 겨울 옷은 그것들 뿐이었던 것 같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남은 유산인 두 옷을 소중히 받아 간직하셨다. 어느 날 마루에 꺼내 놓으시고 한 참을 들여다 보시더니 한복집으로 들고 나가셨다. 걸 양단이 많이 낡아서 새 천으로 수선을 부탁하신 것이었다. 아마 외할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님께서 입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으나 평상시나 명절에 한복을 곱게 잘 입으시는 어머니는 갯저고리까지 입으실 기회는 없었다.

2017년 어머니 94세 되시는 설날에는 세배를 받으셔야 해서 늘 하던 대로 한복을 입혀드리려고 했다. 그 때는 이미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많이 굳어서 치마는 입혀드려도 저고리는 도저히 입힐 수가 없었다. 그 때 고이 모셨던 품이 좀 넉넉한 갯저고리를 저고리 대신 입혀드렸다. 갯저고리를 입으시고 좋아 하시며 환하게 세배를 받으시고 며칠 후 돌아가셨다. 그 갯저고리와 털배자를 경운박물관에서 귀하게 받아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 그 갯저고리를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 주신 것 같아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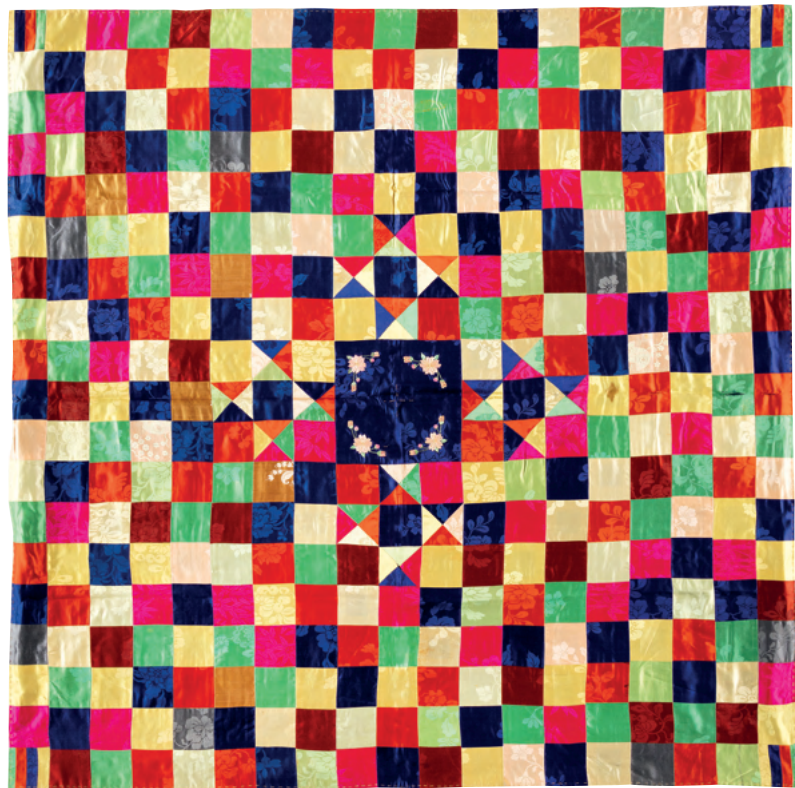
할머니의 수 솜씨



여아 굴레, 1930년대

2020년 가을 외할머니가 수 놓으셨던 굴레, 수저 집, 베갯모, 조각보 등 모두 12건 34점의 유물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외할머니는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미술공부를 위한 유학을 가셨다가 1학년에 결혼하셨다. 학교에서 가정 선생님을 하라고 추천이 들어올 정도로 바느질 솜씨가 좋았다고 한다.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두어 지극한 사랑으로 자식들 키우고 살림에 전념하는 일생을 사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수의는 당신의 어머님이 마련해 준 결혼 예물 옷감으로 해달라 부탁하여 그때까지 간직하셨던 고운 모시로 안을 대고 걸은 베로 지은 수의를 해드렸다.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바느질을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할머니의 수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수와 달리 문양이 독특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더구나 미술을 전공할 정도로 미적인 감각이 있으셨으니 조각보의 색감, 디자인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가끔씩 할머니의 솜씨를 혼자 즐겼으나 오래도록 보관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향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가족의 의견을 모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할머니도 저세상에서 당신의 솜씨가 보물이 되어 남게 된 것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보자기, 1940년대



주머니, 1940년대



보물이 된 일상의 자료들

우진순 55회	60
이인숙 55회	64
천유경 57회	68
설영자 59회	69
이계호 60회	70
김현진 62회	73
박임숙 63회	74
이원영 63회	76
이정우 63회	78

연두빛 활옷, 친정 어머니를 그리며

이 활옷은 친정 어머니(임금희 34회)께서 장녀(우진순 55회, 금속공예가)를 혼인시킨 후 1975년 경에 구입하셨다. 당시의 장인이 제작한 작품이라고 들었다. 원래는 “훗날 며느리 맞이할 때 입히려고 산다”는 말씀을 하시며 장만하셨는데 둘째 딸인 내가 폐백드릴 때 입게 되었다.

개성이 고향이신 어머니는 1927년생이신데 어릴 때 옛 문물을 많이 접하며 자라나셔서 그런지 조선시대 고가구, 목기, 백자 등을 집에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집을 꾸며 놓으시며 생활에서 활용하셨다. 고가구로는 앞을 모두 오죽 쪽으로 붙인 오동나무 이층장, 무쇠 장식이 정교한 강화 반닫이, 옛

날 누마루에 두었을 법한 자개로 아름답게 장식된 살평상, 단아하게 보이는 찬탁 등이 있었다. 사랑 방에는 경상, 연상, 고비, 붓걸이, 백동 쫓대가 있었고 또 안방에는 문갑, 경대, 의걸이장, 민화 병풍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을 같은 개성 동향 분이신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시며 보고 배우셨던 것 같다. 언니와 나도 학창시절 관장님이 사시던 궁정동 댁에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 후에 성북동 최순우 옛집 기념관에서 궁정동 시절의 운치가 재현된 것을 느꼈다.

이렇게 우리 옛것에 취미가 있으셨으니 활옷을 그 당시에 꽤 고가인데도 구입하셨나 보다. 1976년 5월 내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활옷을 입은 우혜원, 1976년

폐백드리러 가는 날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간송미술관 큰 며느님이신 김은영(48회, 서울무형문화재 13호 매듭장)님께서 직접 화관, 산호잡과 앞 땡기를 가지고 오셔서 머리치장을 하고 이 활옷을 입고 시택에 갔다. 이번에 기증할 때 보니 어머니는 뉴뚝으로 만든 분홍색 속적삼과 고쟁이도 맞춰 놓으셨는데 다시 보니 참으로 화사하니 예쁘다. 어머니께서 연두색 활옷은 개성식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이 활옷을 고이 간직하다가 나에게 잘 간직하라고 주셨는데 나도 나이가 드니 어디다 기증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니하고 의논하여 언니와 어머니의 모교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경운박물관에 알아보니 큰 관심을 보이셔서 마침내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였다.

활옷이 안식처를 찾았으니 어머니도 하늘에서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며 경운박물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글 우혜원 동생



당의, 1974년, 우진순 착용

혼례 시 생고사 녹의홍상과 함께 착용하였던 금박 찍은 숙고사 당의이다.



훈례복, 1976년 우혜원 착용

훈례용 녹원삼에 화려하게 자수한 원삼과 활옷을 응용한 훈례복이다. 녹원삼은 왕실에서부터 내외명부까지 널리 착용되었던 대표적 부인 예복이었다.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황원삼, 홍원삼, 자적원삼, 녹원삼 등이 있다. 녹원삼은 민간인에게는 훈례식에 한번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 훈례복은 당시 활옷으로 불리었으며 연두색 길에 소매에는 색동과 한삼을 달고 자수하였다. 허리에 두른 원삼대와 도투락댕기(뒷댕기), 앞댕기(앞줄댕기)는 모두 붉은색 공단으로 금박 대신 가는 연금사로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

도투락댕기와 앞댕기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바탕에 금박을 찍어 장식하지만 화려함을 더하기 위하여 금사로 자수하였다. 도투락댕기 가운데에는 석유향을 달아 장식하였다.



귀중한 할아버지의 망토

내가 입었던 웨딩드레스와 화관 또 녹의홍상 혼례복 등 한복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박경자 부관장님께서 마침 기증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웨딩드레스가 더 있었으면 했다고 반가워하셨다. 어머니께서 간직하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망토, 어머니 아버지의 한복, 동생들 어릴 때 입던 한복 등 여러 점도 함께 기증하였다.

할아버지(이용석, 1888~1939)는 회령 출신으로 여러 사업을 하시면서 육영사업과 기독교 전파에도 힘쓰셨고 독립운동도 지원한 분이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공산주의가 세력을 펴나가자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사업을 서둘러 정리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38선을 넘어 서울에 안착하셨다. 온 식구를 데려오느라 아버지는 월경 안내인을 고용하고 여러 차례 위험을 무릅쓰고 38선을 넘어야 했다고 하셨다. 식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다고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늘 말씀하셨다.



『이조궁정요리통고』를 집필하시는 어머니,
1950년대



색동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필자



망토, 1900년대 초



결혼식, 1973년 6월

모든 것을 버리고 거의 맨손으로 고향집을 떠나 남쪽으로 올 때 할머니(윤선정, 1887~1972)는 할아버지 코트 2벌을 챙겨 오셨다고 한다. 이 중 한 벌이 이번에 기증한 망토이다. 1.4 후퇴로 피난갈 때 이 코트들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와 동생을 업고 코트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셨다고 한다. 코트 한 벌은 안이 밍크로 된 모직 코트였는데 나중에 모피를 뜯어내서 할머니가 솔로 사용하셨다.

할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심방도 자주 가시고 언제나 잘 웃으시는 분이다.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나서 나는 자연히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중학교까지 할머니와 한방을 쓰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목사님 3분의 축수와 송영을 받으며 고목이 스러지듯이 세상을 떠나셨다.

남자 애기들 한복은 내 동생들, 이종범(1950년생)과 이종호(1953년생)가 입던 옷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반갑게 찾아냈다. 양단두루마기, 솜저고리, 솜바지 등 겨울 옷 일습과 항라 저고리, 두루마기 등 여름 옷 일습이다.

식물생리학자이신 아버지(이민재, 1917~1990)는 해방 후 서울대학교 창립 때부터 교수로서 생물학 계열의 식물학과, 동물학과, 해양학과, 미생물학과 창설에 기틀을 마련하셨고 학술원 부회장, 문교부 차관, 강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4남매가 모두 서울대에 진학하고 직계 가족 내에서 모두 13명의 박사가 배출된 것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 하셨다.

어머니(이혜경, 1925년생)는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후에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다.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을 위한 한국요리 강습회도 몇 달간 하셨다. 이때 입으셨던 한복들도 이번에 기증하였다. 1957년에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라는 책을 숙명여대에서 같이 강의를 하신 조선시대의 마지막 수라상궁 한희순선생님, 요리연구가 황혜성선생님과 함께 내셨다.

이 책에 나오는 사진들은 한상궁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조리해서 상차림 하시고 아버지가 촬영하셨다. 내가 초등학교 때 햇빛 좋은 마당에 내어놓고 사진 찍으시던 아버지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웨딩드레스는 1973년 6월 결혼 때 오리지널리 이신우(48회)씨가 손수 디자인 해주셨다. 진주 구슬을 직접 꿰매주시고 베일에 관까지 정성껏 만들어주셨다. 양장점은 예전 서울대 문리대 정문에서 혜화동 쪽으로 큰 길가에 있었다. 내 마음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셔서 자주 찾아다녔다. 우리 4남매 중에 내가 맏이이고 내 여동생 이인경과 두 올케인 이우경, 송은승이 모두 64회 경기 동문이다. 64회 동기가 집안에 셋이나 있었는데 여동생은 안타깝게도 2015년 고인이 되었다.

나는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1995년과 2003년 두 차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초청연구관으로 2004년에는 미국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초청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학예실장과 관장으로 있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초대 경운박물관장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박물관 관장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올림픽공원 내 백제 왕도인 몽촌토성에 자리 잡은 서울시립 한성백제박물관 초대관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하였다.



저고리, 1951년



저고리와 조끼, 1951년



남아 돌복 일습, 1951년

증조부님의 한복

기증자 천유경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나왔을 때 친정어머니가 보관해 오시던 일제강점기에 관직을 지낸 증조부, 천상하千象河의 유품을 기증하였다. 유품은 가족으로 만든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남자의 한복들은 모두 정갈하며 품위가 느껴지는 훌륭한 옷이었다.

전시된 유품 중에는 행의行依, 생초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외에 또 하나의 보물 저고리가 있다. 이 저고리는 3족 속항라 겹감에 3족 면항라 안감을 넣어 만들었다.



면항라 안감 저고리, 1930년대 추정



행의, 1930년대 추정

외손자들 돌상에 놓았던 꽃떡



꽃떡, 2004년



꽃떡, 2007년

2003년 너무 예쁘고 귀한 첫 외손자가 생겼다. 안사돈 어른이 돌복은 외할머니가 해주는 법이라고 하셨단다. 처음 듣는 얘기지만 뭐 내가 하고 싶기도 했으니 나보다 먼저 손자를 본 친구에게 물어 삼청동에 있는 한복집에서 예쁜 돌복으로 소색 바지저고리, 꽃분홍 두루마기에 연두색 사규삼과 호건을 준비했다. 한복디자이너 이희숙씨가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돌날에 맞추어 색색이 예쁜 꽃떡을 만들어 주셨다. 너무 영롱하고 예뻐서 돌이 지나고도 우리 딸이 놓 위에 올려놓고 보았다. 3년 뒤에 둘째 손자 돌날엔 친구 홍순복(59회)이 아는 분에게 부탁하여 꽃떡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꽃가지가 화려한 조금 큰 꽃떡이었다. 돌상에 두 개를 다 올려놓았다. 집에서 오래 건사하다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어떻게 먼지를 닦아냈는지 예쁜 색이 더 영롱하다. 요즘은 이런 전통 꽃떡은 없나보다. 케이크처럼 생긴 떡에 생화를 얹어 화려하게 돌상을 꾸미는 추세이다. 이제 큰아이가 스무살이니 꽃떡으로는 유물인 셈이다. 아마도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무 때나 생화를 구하기 힘들었을테니 떡으로 꽃을 빚어 아이의 건강과 복을 빌어 주었던 것 같다. 지금도 색이 영롱한 꽃떡, 전시되어서 정말 기쁘다.



셋째 외손자 돌잔치, 2014년

은자동아 금자동아

내가 처음 어머니(이석희, 1914~2018)가 호건을 만드시는 걸 봤을 때가 1970년이였다. 큰오빠 아들 둘 때 호건을 만드시며 나더러 호랑이 이빨을 수 놓으라고 하셔서 했더니 “이빨이 듬성듬성하기도 하구나” 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호감투나 범감투라는 말을 쓰셨다.

어머니가 우리들 6남매를 키우실 때는 어른들 모시고 바쁘게 사느라고 호건을 잇고 있었는데 큰조카 둘 몇 달 전에 친척 아주머니께서 옛 호건을 찾았다며 당신 아드님 것을 만들어 달라고 들고 오셔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셨다. 실물을 보고 이리저리 연구해가면서 여러 번 다시 뜯고 고치면서 만드셨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옛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감탄하며 신기해하셨다. 그 호건의 주인이 어머니의 사촌 동생이라니까 191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분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리로 보내주었다고 하셨다. 색이 많이 바랜 호건 생각이 난다.

굴레는 서울식이라고 하는데 증손녀들 때부터 만들어 주셨다. 실물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증손녀들만 태어나서 많이도 만드셨다. 그러다가 증손자들이 연달아 태어나서 더 기쁜 마음으로 호건도 여럿 만드셨다. 어머니는 3남 3녀에 손자 손녀들 17명,

증손주들 22명을 두셨다. 2010년 겨울, 쌍둥이 증손주들 둘 때 어머니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시며 호건과 굴레를 만드셨다. 내가 도와드린다고 옆에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도움도 못 되었다. “손이 말을 안 들으니 구슬 꿰어 다는거나 네가 해라” 하셨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져 집어 던지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그냥 집에 왔다. 며칠 후 가 보니 다 만들어 놓으셨다. 완성된 후에 금박 박아다 드린 게 겨우 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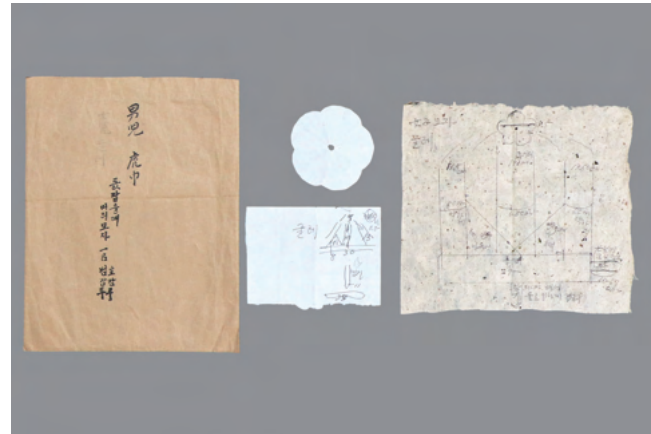


바느질 하시는 어머니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욕심은 나서 미래에 태어날 내 손자 손녀들 것도 하나씩 만들어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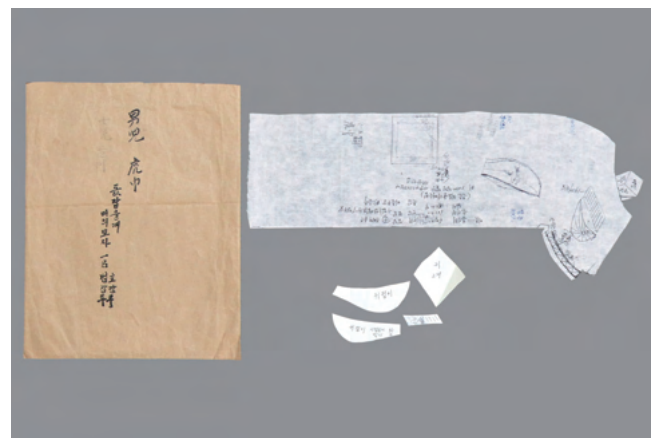
세가닥 굴레, 2011년



세가닥 굴레 본(本), 2011년



호건, 1982년



호건 본(本), 2011년

라고 했다. 아들아이 둘 때 만들어 주신 호건은 가지고 있는데도 욕심을 부렸다.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은 물론, 정말 만들어 보면 재미나고 신기하니까 나중에라도 만들어 보라고 한지에다 본을 그려 자세히 설명을 써주셨다. 어머니는 처음 만들 때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만 요대로만 만들면 된다고 하셨다. 귀 만들기가 제일 까다롭다고 그 부분은 실제 옷감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본도 예쁘게도 잘 그리셨고 통통한 글씨체는 언제 봐도 반갑다. 새 학년 때마다 가정조사서를 써주시고 외국에 나가 살 때 편지를 써주시던 정다운 글씨다. 손이 뻣뻣해져서 주먹도 제대로 안 쥐어지는 손으로 바느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셨다. 2011년 어머니가 아흔여덟이실 때였다.

부끄럽게도 나는 호건 둘, 굴레 하나는 확보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지 않았다. 비단 보다는 더 실용적인 소재로 아이들 겨울 모자로 만들어 봐야지 생각만 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박경자 부관장님께서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에 우리 쓰개에 대한 강의를 나가신다고 하여 나는 복사를 떠놓고 강의에 혹시 도움이 되려나 해서 드렸다. 나중에 보니 박물관에 기증이 되었다.

우리 아들아이 둘 때는 바지저고리, 조끼, 마고자, 버선, 두루마기, 전복, 호건까지 돌복 일습을 손수 지어서 미국으로 보내주셨다. 입는 순서까지 써서 보내주셨다는 데 사진을 보니 한 번도 제대로 옷을 입히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 글을 쓰며 사진을 찾아보니 마고자에 전복을 입혀서 돌상에 앉혔다. 그 당시에는 옷 순서를 잘못 입혔다고 하셔도 별 잘못인지도 몰랐다. 박물관에서 일하다 보니 조금 보고 배운 게 있어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내 잘못을 깨닫는다.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

었는데 옷을 제대로 입히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정말 죄송스럽다.

돌날에는 붓글씨로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라는 자장가를 부채 모양으로 써두셨다가 우리가 귀국하니 주셨다. 늦둥이 막내딸인 나의 아들을 위해 돌날 당일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 쓰시는 어머니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가족사진, 앞줄 왼쪽이 필자, 1970년대

김현진 62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Ⅳ



남바위 (앞 · 뒤)



풍차



풍차의 술매듭 장식

남바위와 풍차는 1905년생 김안숙님(전주 최씨 종부)이 사용하던 것으로 기증자의 외조모이다. 남바위의 겉감은 모본단, 안감은 홍색 면용이며 담비털로 선을 댔다. 정수리 부분에 술매듭 장식이 있으며 앞은 5봉, 뒤는 3봉의 술이다. 풍차의 겉감은 수복문단, 안감은 법단이며 남바위와 마찬가지로 담비털을 둘렀다. 술매듭 장식이 있으나 근래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혼례와 기록

2018년 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Ⅲ〉 전시에 친정어머니(하상례, 1931년생)의 수 족자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사주단자에서 나온 혼례관련 기증품의 전시가 있다 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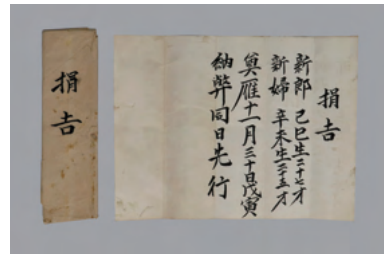
대학교 다닐 때 까지 살았던 한옥에는 다락이 있었습니다. 다락 미닫이문에는 사군자와 같은 병풍 그림이 붙어 있었고, 문을 열면 벽장 같은 좁은 공간에 원기소, 경옥고 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큰 합에 가득 엿이 있기도 하였는데, 제가 경기여고 입학시험을 볼 때 아버지께서 강화도에 부탁하시어 직접 고아온 것이었습니다. 2층 다락은 넓은 공간으로, 어려서는 그곳에 올라가서 여동생과 함께 원기소를 먹으며 놀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고리짝, 함상자, 사주단자 등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락이 어둡기도 하고 케케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지는 않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여동생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느냐 물으니 고리짝에서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 오신 노방치마가 십자 묶음이 뜯기지도 않은 채 진솔로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1978년 아파트로 이사할 때 어머니는 낡아서 부스러지는 큰 고리짝은 버리시고 나머지 물건들은 고스란히 가져오셨습니다. 그 후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결혼하여 나가고 우리 자식들 어느 누구도 그 물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 여동생도 세상을 떠나며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주변을 정리하시느라 경운박물관에 당신의 물건들을 기증하셨습니다. 2018년 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Ⅲ〉 전시에 전시된 족자 이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기증되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보이는 물건들은 기증하신 사주단자에서 나온 혼례관련 물건들입니다.

예로부터 관혼상제를 인륜지대사라고 하고 혼례를 치르는데 하는 여섯 가지 의식이 있어 이를 육례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증하신 사주 단자에는 사주四柱, 연길涓吉, 상장上狀, 고천문告天文 등 육례六禮에 관련된 서류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신식결혼식을 하셔서 단기 4289년이라 적힌 청첩장, 운현궁예식장 영수증, 신혼여행지인 유성온천호텔 영수증 등이 있고, 아버지 친구분들의 축사, 피로연장 방명록도 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신 저축예금통장은 어머니 명의로 되



사주四柱,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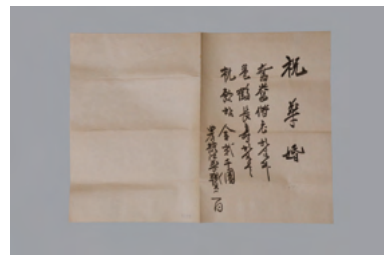
연길淸吉,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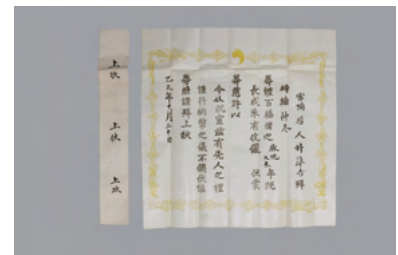
고천문告天文, 1956년



상장上狀, 1956년



축의금 내지, 1956년



상장上狀, 1956년

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50주년 가족 모임을 혼례날 피로연을 하였던 아서원(지금 롯데호텔 본점 자리에 있던 중국음식점) 자리에서 하자 하셨고 혼례 날 입으셨던 치마와 종이꽃을 달고 참석하셨습니다. 그 종이꽃은 코티 분곽에 담겨 어머니 화장대 위에 50년 동안 보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서는 이것을 달아보며 놀곤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두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주단자와 함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기는 하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 하지도 않았는데 60여년이 지난 후 어머니의 기증을 통해 우리 가족의 탄생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우리 4남매를 온갖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의 혼례 서류를 보게 된 것은 어머니가 당신의 모든 자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보관하신 덕분입니다. 막내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서울대에 후배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부하신 후, 쓸쓸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당신의 주변 물건들을 정리하여 주변에 나누시고, 또 일부를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시고자 할 때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생활의 자료를 그 의미를 살려 귀하게 여기고 전시해 주시는 경운박물관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집에서 혼자 과거를 회상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싱그러운 미나리 한 단을 사들고 친정으로 향합니다.

배냇저고리의 기억

오늘 퇴근 길에 경운회 박물관 선배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2014년경 당시 박물관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 이경순에게 권유받아 엄마가 직접 만들어 우리집 4명의 딸들에게 입히셨던 배냇저고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달라고 하셨다.

배냇저고리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고3 때 예비고사 보던 날 엄마가 시험 잘 보라고 속옷과 겹에 입은 교복 사이 등 쪽에다 배냇저고리를 등집처럼 둘러매게 하고 시험 보러 가게 했던 기억이다.

그때는 나중에 권사까지 되신 엄마가 교회 다니시기 전이어서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50퍼센트의 예비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뽑았던 이대 의대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1974년 6월

우리 엄마는 우리 네자매를 1956년, 1958년, 1963년, 1974년에 걸쳐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매의 배냇저고리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남아선호사상으로 둘째 옷은 꽃을 초록색으로 수놓았는데 다음 아이는 아들을 염원하면서 만드셨고 특히 둘째의 아명은 할머니가 다음에 솜뽕이 나오라고 암뽕이라고 부르셨다. 63년생 셋째의 아명은 필녀이다. 여자를 필했다는 의미로. 76년생 넷째는 엄마가 44세에 그 당시로는 드물게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그때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명을 꼭지라고 부르셨다. 63년생 동생과 74년생 동생 사이에 3번 유산을 하셨다는데 엄마는 그 유산된 아이들이 아들일 거라고 하셨



이원영 배넛저고리, 1956년



첫째 동생 배넛저고리, 1958년



둘째 동생 배넛저고리, 1963년



셋째 동생 배넛저고리, 1974년

다. 그래서 1973년 여름 쯤 아이가 들어섰을 때 그 아이
마저 잘못될까 봐 할머니가 다 살림하시고 엄마는 바깥
출입 금지상태로 누워서 생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고2 때
엄마가 단 한 번도 학교에 와서 담임선생님을 못 만나시
게 된 결과 나에게는 잊지 못할 어둠의 고2 생활을 보냈
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족사진, 1975년

색의 마술사, 이영희 디자이너

색의 마술사로 불리우던 이영희 디자이너는 한복을 파리에 소개하며 ‘LEE YOUNG HEE’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열었고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꾸준히 참여함으로 우리의 전통 옷을 ‘한복hanbok’으로 불리도록 하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의 개회식 의상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던 이영희 선생님은 2018년 5월 타계하셨다. 따님인 이정우(62회, 메종드이영희 대표)는 1차로 경운박물관에 1,200여점의 어머니의 유물을 기증하고 2차로 대구박물관에 만여 점의 유물을 기증하였다.

경운박물관은 2019년 가을 이영희 회고전 〈玄 玗〉, 2020년 봄 이영희 기증전 〈무한한 색감의 변주〉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회고전에는 바람의 옷을 비롯하여 디자이너로서의 이영희의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전시하였고 기증전에서는 이영희 선생님의 독특한 색감의 색동저고리를 비롯한 깊고 그윽한 색감의 의상을 전시하였다.



워싱턴 쇼, 2005년

이번 전시에는 원삼과 활옷을 이용한 혼례복과 수집품들이 주로 전시되었다. 아름다운 전통의 색감과 형태가 뛰어난 혼례복, 굴레 등 쓰개 종류, 조각보, 재봉 도구는 이영희 선생님의 한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준다.



훈례복, 이영희한복 作

활옷의 특징은 붉은색 비단에 모란, 연꽃, 봉황, 수파,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 등이 자수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이 훈례복은 남색 바탕에 모란을 화려하게 자수한 것으로 남색 길에 색동 소매를 단 전라도 지방의 원삼에 활옷의 자수가 응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모시조각보



자수조각보

남아 굴레

굴레는 서울과 개성을 비롯한 이북지방에서 3~5세의 남녀 어린아이들이 착용하던 쓰개의 일종이다. 아홉가닥 굴레와 세가닥 굴레가 있다. 세가닥 굴레는 주로 서울지방에서, 아홉가닥 굴레는 주로 개성지방에서 사용하였다. 이 굴레는 남아용으로 검은색 비단에 화려하게 자수한 가닥을 모아 형태를 만들고 뒤에 검은색 드림과 청색 드림을 달고 보라자 주색 끈을 달아 앞에서 묶게 했다. 여아용은 홍색 드림을 달고 자수를 하거나 장식이나 구슬을 달기도 한다. 남아용은 검은색 드림을 달고 금박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남아의 굴레는 비교적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골무



여아 운혜



대모 안경



대모 안경과 안경집



소중한 인연, 빼어난 솜씨

김영숙	84
송진섭	86
이현정	88
조봉자	92

김영숙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

영혼의 작품을 남기다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에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증된 복식유물뿐만 아니라 재현된 복식을 함께 전시한다. 2020년 전 단국대학교 전통복식학과 고부자 교수께서 퇴임 후 제주도 고향으로 내려가시며 그동안 모아 오셨던 재현 작품들 중에서 31점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셨다 다양한 조선시대의 남성 포 종류와 여자 치마, 배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내가 만든 수업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오랜 기간 동안 모아오신 직조 장인이나 인간문화재들이 짠 삼베 모시 무명 명주도 21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작품이 한 점 있었다. 조선 전기 정응두 묘 출토 철릭의 재현품이다. 철릭은 조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착용되었던 포의 일종으로 관복의 반침옷이나 용복으로도 애용되었다. 포의 형태는 의_의와 상_상이 연결된 형태로 조선 전기에는 의와 상의 비율이 거의 1:1 이며 후대에 갈수록 의의 길이는 짧아지고 상의 길이가 길어진다. 허리둘레에는 주름을 잡아 폭이 넓어 활동하기에 편리하다. 주름의 너비는 조선 전기에는 1~2mm로 후기에 갈수록 주름 너비가 넓어져 3cm까지 넓어진다. 소매는 매듭단추를 사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것도 있다. 소매를 분리하였을 경우 활동적이어서 활쏘기, 전쟁이나 사냥을 할 때 편리한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이 철릭 재현품은 2002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섬세한 바느질과 그 태가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고부자 교수님의 애제자인 침선가 김영숙의 작품이다. 수상 기념으로 교수님께 드렸던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전통문화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하였다. 기증된 재현품 중에는 그의 작품인 단령, 답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며칠 전 나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슬프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수년 전 유방암 수술로 작품 활동을 중지하고 항암치료 등 건강관리를 하여왔다. 항암치료 중 마지막으로 작업을 같이 한 것은 2018년 국립대구박물관 상설전시에 전시될 조선 시대 복식 일습을 제작할 때였다.



16세기 정응두 철릭, 재현품

기증된 김영숙 선생님의 철릭을 전시하기로 생각하고 원고를 부탁할 수 있을까 전화 연락을 하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약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으나 그간 잘 버텨 온 터라 병원에 갔겠거니 아니면 잠을 자고 있나 생각했었다. 그의 침선은 유난히도 깔끔하였던 그의 외모와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바느질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의 침선을 고집하되 융통성 있게 조금씩 전통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진취적인 바느질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와는 통하는 점이 있었다고 돌이켜 본다.

귀한 작품들을 우리 박물관에 남겨주고 아직도 젊은 나이에 소진되어 가버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환하게 비쳐 보이는 철릭의 모시 결 속에서 그의 영혼이 아련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부디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면하기를 빈다.

글 박경자 50회

송진섭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

신식과 구식을 겸하며 삽니다

내 자신이 복이 넘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버지는 구한말에 벼슬을 하시다가 나라를 빼앗긴 뒤로 독립운동을 하셨다. 어머니는 견문이 넓고 지혜로운 분이셨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위험에 처한 아버지를 직접 가서 모시고 오셨다. 훌륭한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나 온갖 정성과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다. 지금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교육 덕분이다.

어머니는 내 교육에 온 힘을 바치셨다. 험한 세상에서 조심시키느라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시고 집에서 천자문 등 글공부를 시키셨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일제 감시를 받으며 집에 머물던 사촌형부가 내 가정교사가 되었다. 해방 직전 일본 학교에 입학허가서까지 받았으나 B29 폭격이 시작되고 위험한 세상이 되자 어머니는 유학 대신 신랑감을 찾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그래도 결혼 전 딱 1년만 직장 생활을 허락하셔서 상공제약이란 곳에서 영문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자격증도 땀다.



송진섭, 2020년

사대문 안에서 살다가 마포, 지금의 대흥동으로 시집을 갔다. 시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고 남편은 결혼 당시 학병이었고 후에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마포 집은 좋은 재목으로 잘 지은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영화도 몇 번 촬영했다. 오랜 세월 그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구 등 많은 아끼던 물건들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나는 무남독녀 외동딸이고 남편은 사대 독자였지만 우리는 오남매를 낳아 길렀다. 아이들 학부형 모임에 한복을 입고 갔다가 줄넘기, 달리기 시합이 있어 속바지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뛰어 일등도 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내 혼숫감을 준비하셨다. 방물장수들

이 좋은 옷감들을 가져오면 미리미리 사두셨다. 옛 옷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비단을 체로 받쳐서 입는다”는 말이 있다. 계절 별 비단, 노방, 모시 등 고급 옷감 한복을 뜯어 원피스도 만들고 누비 조끼도 만들어 입는다. 옷 위에 모란, 매화 등을 그려 화려한 옷으로 만들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반지, 노리개 등 좋은 장신구를 지녀 그런지 나는 아직도 장신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외국 여행을 가면 그곳 토속 장신구들을 사는 재미도 즐겼다.

학교 졸업장은 하나도 없지만 이것저것 많이 배워 내 머리는 지식의 보고라고 자부한다. 코로나 전까지 시민대학 수강 등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 석학에게 듣다’ 강좌를 들으면서 고부자 전 단국대 교수를 만나 경운박물관과 인연을 맺었다. 경운박물관에 내가 옛 한복을 뜯어 서양식으로 만들어 그림을 그린 옷들, 그림, 그리고 혼수로 해오고 한 번도 입지 않아 빨간색 실 상침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시 속바지 등을 기증했다. 박경자 부관장님이 평상시에 입으려 한다며 상례에 입었던 소색 한복에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하셨다. 이렇게 나의 재주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이 또한 행복이 아닐까 고맙게 생각한다.

내 나름대로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며 신식과 구식을 겸하는 자세로 살고 있다. 몇 년 전엔 지하철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인연이 되어 최고급 전주 합죽선 백 개를 선물 받았다. 그림을 그려 대여섯 개만 달라고 하며 나머지는 선물로 쓰라고 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사나흘 식음을 전폐해 영양주사를 맞은 것 외에 병원 신세도 거의 지지 않고 살았다. 어찌 복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컴퓨터를 좀 배웠더라면 조금 더 세상과 소통을 잘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매화그림 조끼와 치마

이현정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Ⅳ

일상이 일이 된 어머니 ‘내제댁’

어머니(1934~2019)는 경남 의령군 낙서면 내제리에서 태어나셨다. 내제는 벽진 이 씨 집성촌으로 서부 경남의 반가 중 한 곳이다. 스물 셋에 이웃 마을 설피로 시집가신 어머니는 내제 출신이라 ‘내제댁’이라 불리웠다. 어머니는 마산, 부산을 거쳐 60년대 우리 6남매를 공부시키기 위해 서울로 오셨다.

어머니는 식솔이 항상 열 너댓은 되는 데다가 손님이 끊이지 않는 큰살림을 하셨고, 할머니를 평생 모셨다. 할머니는 말년에 병원에 입원하실 때까지 한복을 입으시고 쪽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셨다. 당시 한복을 뜯고 빨아 손질하고 꿰매는 일은 우리집의 일상이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어머니는 집안사람들 수의 만드는 일을 할머니와 같이 하신 것을 시작으로 집에서 주문을 받아 한복을 만드셨다. 그렇게 어머니의 일상생활이 어머니의 직업이 되었다.



이현정



훈례복, 이현정한복 作





저고리, 1930~50년대

작고한 석주선 단국대 박물관 관장님과 함께 한복을 연구했고 유희경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배움의 문을 여셨던 것 같다. 어머니는 못다 한 공부도 하시면서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셨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중 코엑스 전시장에서 우리 옷 전시회를, 1993년 대전엑스포 기간에도 패션쇼를 여는 등 많은 활동을 하셨다.

그러나 그때는 여성의 바깥 활동을 좋게 보지 않고 원하지도 않던 시대였다. 우리 집안에서도 어머니의 외부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족들이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지 않아 힘들게 일을 하셨던 것 같다.

어릴 때 집에 늘 손님이 많아 방석만 수십 개였는데 민방석은 거의 없고 아플리케 혹은 조각 천을 이어 만든 어머니의 작품이었다. 또 어머니는 시댁과 친정, 사돈댁의 풍습이 다 다를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집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 옷도 항상 격식에 맞게 입으라고 이르셨다. 언젠가 어머니는 제게 “나도 너만 할 땐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 것의 고마움과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도 내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신 적은 없었다. 다만 우리에게 상례 때 상복은 꼭 흰 무명을 입고 수의는 삼베 대신 소재 명주로 하라고 당부하셨다.

어머니는 큰일을 하면서도 6남매를 거두셨는데 우리 6남매는 어머니 한 분을 잘 못 모신 것이 죄

송하고 후회스럽다.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장엔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셨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시고 시집 집안 동서분들에게 바깥 활동으로 집안 일을 같이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셨다.

어머니와 경운박물관과의 인연은 20여 년 전 박물관의 모태가 된 경기여고 생활관이 생길 때였다. 당시 어머니는 직접 지으신 당의와 저고리 몇 점을 경기여고에 기증하셨고, 그 일이 어머니 유품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 기증품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의복, 수집 소장품 및 어머니 유작품 등이 포함돼 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한복 일을 하고 있는 딸로서 감회가 각별하지만 근현대 복식, 특히 개화기 이후 한복을 많이 소장하고 좋은 전시를 기획하며 보존을 철저히 하는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도 안심하시리라 생각한다.

글 안소명 딸



두루마기, 이현정한복 作



두루마기, 이현정한복 作

조봉자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

나의 솜씨 베갯 모, 학날개의 깃털 하나하나를 살리며

저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복 바느질을 접하게 되었고 바느질은 나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재봉틀보다는 모두가 손바느질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십자수나 동양자수에도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자수에 접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고 당시 내게는 나보다 여섯 살이 더 많은 고종 사촌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학교 가사 시간에 십자수 동양자수 등 바느질을 배웠고 나는 그 언니의 어깨너머로 자수를 배웠습니다.

십자수는 비교적 쉬웠으나 비단실을 사용하는 자수는 좀 어렵지만 광택이 아름답고 신기하여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수틀을 매어 달라고 해서 시작해 보았는데 꽤 되더라구요. 국화꽃수를 놓을 때에는 무늬를 그린 바탕천에 부분적으로 솜을 약간씩 두어 수를 놓으니 입체감이 살아나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좋은 자수 제품이 없어서인지 제 작품이 엄청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학을 수놓은 학침 베갯모를 수놓을 때에는 학 날개의 깃털 하나하나의 결을



태극무늬 베갯모, 1960-70년대



학무늬 베갯모, 1960-70년대

살리는 작업이 너무나 재미있고 흡족하기도 하였어요. 신이 난 저는 학침 베갯모를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하는 친척 언니에게 선사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자수는 나의 가장 재미있는 취미였습니다. 그러나 비단실로 평수, 자릿수, 이음수 등으로 촘촘이 메꾸는 자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하며 옛일을 회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70여 년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작품이라 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제 솜씨 베갯모 네 쌍을 2018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운박물관 부관장이신 박경자 형님께 우연히 보여드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여고 동문도 아닌 저의 솜씨가 많은 분들께 소개가 된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흑단령^{黑團領} 재현 이야기

지미영 61회

기증 의욕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박경자 | 경운박물관 부관장

기증자 명단

전시장 전경

흑단령 黑團領 재현 이야기

지미영 61회 | 박물관 위원

흑녹색을 띤 단아한 모습의 흑단령은 한일강제합병 직전까지 신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던 한 젊은 대한제국 관료의 여름 관복이었다.

바야흐로 20여 년 전 경운박물관이 한창 개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명애(50회) 선배님이 집안 깊숙이 대대로 보물처럼 보관해 오던 시할아버님의 관복을 다른 유물과 함께 내어놓으셨다. 그리하여 흑단령은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개관전을 통해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 국립민속박물관의 대여 요청으로 일반에게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랜 세월을 견뎌낸 섬유 유물들이 그렇듯이 더 이상 전시하기는 매우 조심스럽고 실견조차 허락하기 힘든 상태였다. 더욱이 이 시기에 제작된 의복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되므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전명애 선배님이 단령 재현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쾌척해 주셨다. 그 덕분에 흑단령의 재현작업은 경운박물관 수장고의 수장이신 박경자 선생님의 기획으로 시작되었다. 침선가 안인실 선생님의 재능기부와 경운박물관 재현팀 위원들의 거의 일년 반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6월 재현품으로 재탄생 하였다. 통상 유물의 재현작업은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실견에 의한 치수 측정, 옷감 재현, 침선법 등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2017년 12장복 재현 당시 제작하였던 옷감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녹색조를 띤 흑색의 유물과 달리 청색을 띤 흑단령이 된 점이다.

작업과정은 주 1회 모여 진행하다 보니 참으로 지루하리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선 십여 명의 위원들이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아 손을 보탤다. 은조사는 평직으로 보이나 꼬임이 있는 익직물로 잠자리 날개같이 얇게 비쳐 보이는 가장 바느질하기 힘든 옷감이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다 손바느질인데다 평균 연령이 회갑을 훌쩍 넘은 팀 구성원들은 치과의



19세기 말 단령, 재현품

사용 돋보기까지 쓰고 날줄과 씨줄을 따라 촘촘하게 흰 실 표시를 했다. 완성선 역시 흰 실 홈질로 미리 표시를 하였는데 직선과 직선을 잇는 술기의 바느질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나 직선과 엇선을 잇는 바느질은 쉽지가 않았다. 더구나 각각 솜씨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바느질한 것을 조합하는 바느질 과정에서는 균형을 맞춰 보정하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았다. 겨우 올을 맞추어 작업해 놓고 다음 날 가보면 바느질이 어긋나 있기 일쑤라서, 아무래도 옷이 살아 밤새 움직인 것 같다며 다시 수정을 거듭했다.

겨드랑이 바대를 대는 작업과 단령의 등근 깃을 완성하는 작업은 바느질의 진수를 엿보게 하는 과정이었다. 깃을 달고 안감에 직령의 깃을 달아 합치는 마무리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작업이어서 안인실 선생님께 일대일 과외를 받듯 나에게 맡겨졌고, 평소 한복 바느질에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종이 심지를 넣은 동정을 만드는 과정에선 유물과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 한지에 어교를 바르는 등 과거 어느 재현과정에서도 체험할 수 없었던 깊은 감동을 맛보았다. 한편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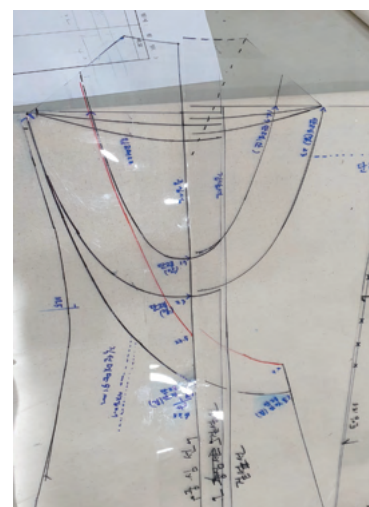
제작 기간에도 봄, 가을 기획전시는 철을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재현팀과 수장고 위원들은 그야말로 멀티 태스킹으로 바느질 방과 전시장을 드나들어야만 했다.

전명에 선배는 임천 조씨 집안 장손(조두영趙斗英, 정신과 의사 1937년생) 며느리시다. 이 관복의 주인이셨던 시할아버님(조재혁趙在赫, 1881~1951)은 서울 토박이로서 한일합병 때까지 외무부 이민국에 해당하는 유민원留民院 참서관으로 영어에 능통하시고 개화에 앞장섰던 젊은 관리셨다. 조선 말기 의제개혁에 따라 관복이 간소화되어 소매 폭이 좁아지고 둥근 깃을 올린 이 흑단령은 흑녹색은 조사 걸감에 청녹색은 조사를 받쳐 물결처럼 어른거리는 어른무늬의 신비함과 진지하고도 차분한 느낌 속에서 단아한 선비의 기개를 내비친다. 그러나 아쉽게도 1910년 한일강제합병으로 채 서른이 되지 않은 젊은 관료의 관복은 본연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후 오랜 세월 장 속에서 세월의 침묵을 견뎌야 했다. 그러므로 이번 재현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당시 관복으로서의 단령의 모습과 기품, 제작방법을 길이 후손들이 가까이 접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크나큰 의미가 있음을 자부한다. 단령 재현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지정기부자 전명에 선배님은 조상님들과 후손들도 모두 기뻐하겠다고 소감을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주시고 재현을 가능하게 해주신 전명에 선배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서툰 우리를 인내하며 이끌어 주신 안인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던 수장고 위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① 유물실측



② 옷 본 그리기



③ 광목 샘플 만들기



④ 광목 샘플 만들기



⑤ 샘플 완성(깃 부분)



⑥ 옷감 다루기



⑦ 마름질



⑧ 시침질



⑨ 유물 재확인 작업



⑩ 완성단계

기증 의욕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박경자 50회 | 경운박물관 부관장

이번 기증전은 2018년 상반기 전시 이후 4년 만의 전시이다. 2018년 3월 이후 2022년 3월까지의 기증자 수는 105명이며 기증품은 4,500여 점이다.¹⁾ 유물 구입비가 전혀 없는 우리 박물관으로서 기증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경운박물관에 기증하면 하찮았던 물건이 가치를 찾고 잘 보존된다는 평이 나서 기증은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다.

신혜순(46회) 기증, 최경자(디자이너) 작품

작년 겨울에 2022년 상반기 기증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Ⅳ〉를 위하여 한국의상박물관 신혜순 관장님께 어머니이신 1세대 디자이너 최경자 선생님의 작품 기증을 어렵게 부탁을 드렸다. 신혜순 관장님은 우리 박물관과는 2008년 한국패션 100년전시로 가까워진 선배님이기도 하다.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보통 한 점씩만 소장되어 있어서 기증받기가 쉽지 않았다. 최경자 선생님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기증은 어렵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재현해 주시기로 하였다. 1959년제 8회 미스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했던 미스코리아 오현주(46회)가 입었던 비단 아리랑드레스 역시 재현해서 우리에게 기증해주신 작품이었다.

재현해 주시겠다던 작품은 색동옷감으로 만든 소매 없는 드레스였다. 기대는 했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후 신혜순님이 다리를 다쳐 작업이 불가능해지셔서 대신 기증해주신 작품이 지금 전시된 최경자, 신혜순 모녀가 입었던 정장 두 벌이다. 모녀가 집무실에서 찍은 정겨운 사진과 함께 보내오셨다. 슈트와 함께 착용하였던 블라우스, 목걸이, 스카프 등 일습을 함께 기증해주셨다. 최경자 선생님이 벨벳 슈트와 함께 하셨던 쉬폰 스카프가 눈길을 끈다. 너무나 낡아 구멍까지 뽕뽕 뚫려있어 꺾매고 또 꺾매어도 전시하기 힘들 정도이다. 원로 디자이너의 수많은 손길이 느껴져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가슴이 찡해진다.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아끼며

1) 2018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Ⅲ〉 전시에 선보이지 못하였던 최재완(47회), 천유경(57회), 이원영(63회)의 기증품은 이번 기증전에 포함하였으며 총 108명의 기증자를 다루었다.

살았단다”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

전시마다 대표 작품을 전시해 왔던 제1장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2020년 김수자(46회)가 기증해 준 최경자 선생님의 작품 1점이 있었다. 1963년 미국에 유학갈 때 해주 신 옷이라는데 지금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프렌치소매 코트이다. 다홍색과 카키색 문단을 사용하여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만든 멋진 얇은 코트로 두 벌의 슈트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이경희(54회) 기증, 임화공(꽃꽂이 전문가) 유품

꽃꽂이 1세대 임화공 선생님의 유품을 전시하였다. 2019년 선생님의 유품을 처음 접한 곳은 김포에 있는 한 창고에서였다. 주택의 내부를 완전히 부수어 창고로 만든 두 채의 집에 가득한 유품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채에는 한복과 평소 쓰시던 물건들이 있었고 한 채에는 꽃꽂이 화기로 쓰기 위하여 제작했던 수많은 백자 항아리와 수반들이 있었다. 송추에 가마를 가지고 직접 제작하셨다고 한다. 많은 도자기를 경운회와 박물관에 기증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기증품의 수는 모두 394점이다.

전시되어있는 검은색 슈트는 임화공 선생님이 입으셨던 유일한 양장이었고, 평생 한복을 입으셨으며 그 고운 자태가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다. 1960~70년대 의 다양한 옷감으로 한복을 만들어 입었던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한복들과 전통 옷감으로 만든 한복들이 잘 어우러지는 한복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무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즐겨 입으셨다.

선생님의 한복들을 정리하며 그토록 오랫동안 후배를 양성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도 불편하다는 한복을 입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아함에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였다. 폭이 A-line 형태의 치마보다는 폭이 좁아서 간편해 보이는 치마, 전통의 기본에 충실한 한복, 그것이 답이었다. 치마 아래로 보이는 도톰하게 솜을 둔 버선과 고무신이 한복을 완성시켰다.

솜을 두껍게 둔 어린이 옷, 풍차바지와 저고리는 1.4후퇴로 피난갈 때 딸 이경희에게 입히려고 손수 만든 옷으로 그때의 가슴 아픈 상황과 추위를 가늠해 볼 수 있게한다. 이 외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부군의 양복, 조끼와 타이를 고이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선배님 중에 또 한 분, 평생 한복을 입으셨고 몇 년 전까지도 학교 동창 모임이 있을 때 꼭 한복을 입고 본택인 이문동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오시던 안한순(28회) 선배님이 계시다. 다시 지어 입고 고쳐 입으셔서 많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후 며느리, 이인혜(57회)가 기증했다. 옷감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희귀한 옷감 샘플도 주시고 가끔 자문도 하였기에 그리워진다.

이정우(63회) 기증, 이영희(한복디자이너) 작품과 수집품

이정우의 기증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회고전에서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원삼과 활옷을 이용한 혼례복과 수집품들이 주로 전시되었다. 조각보를 비롯하여 남자 탕건, 안경, 여아 신발, 굴레와 바느질 도구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활옷은 홍색 비단에 오색 견사로 화려하게 자수한 혼례복을 말한다. 왕족이나 반가에서 활옷으로 성장한 신부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나 문헌 기록에는 ‘활옷’이라는 명칭은 없다. 18세기, 19세기 기록에 신부가 홍색 바탕에 연꽃을 가득 수놓은 홍장삼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시된 이영희 혼례복은 진한 남색 바탕에 모란과 연꽃 등을 화려하게 자수한 것으로, 남색 길에 색동 소매를 단 전라도 지방의 원삼에 활옷의 자수가 응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감색을 선호했던 이영희 선생님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경애(54회) 기증, 화문갑사 녹원삼

전통적인 혼례용 녹원삼으로 두록색 화문갑사에 홍색 화문갑사 안감을 넣었고 청, 홍, 분홍, 송화색, 자주색을 이은 색동 소매에 한삼을 달았다. 방령형 맞깃에 합임이며 깃과 고름은 대추 자주색이다. 길이는 전단후장(前短後長)으로 앞뒤 길이의 차이를 두었다. 동정의 길이가 좌우 동일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동정을 갈아 달며 잘못 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삼대는 홍색 공단에 금박, 도투락댕기는 검은색 쌍용문갑사에 금박을 찍고 석옹황과 매미 모양의 자마노로 장식하였다.

이 외에도 시부모님의 한복, 직물, 버선코자, 문발, 활, 유기그릇, 돌솔, 향아리 등 143점의 유물을 기증하였다. 돌솔과 향아리는 100주년 기념관 지하 마당에 자리하고 있다.

우진순(55회) 기증, 활옷

원삼과 활옷의 자수가 응용된 1975년 경 혼례복으로 당시 활옷으로 불리었다. 연두색 공단 길에 모란, 십장생을 자수하였고 색동 소매에 한삼을 달았다. 원삼대, 도투락댕기(뒷댕기)와 앞댕기(앞줄댕기)는 붉은색 공단으로 금박 대신 가는 연금사로 정교하게 수가 놓여 있다. 도투락댕기에는 석옹황을 달아 장식하였다.

박영숙(49회) 기증, 수 보자기

시어머님이 물려주신 보자기는 기증자 원고에는 상보로 기록되어 있으나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았고 뒷면에 유지를 대지 않은 점으로 보아 혼례용 수 보자기로 생각된다. 이 보자기를 넣어 두었던

인사동에서 구입한 상아 감잡이를 사용한 용목龍木 작은 함이 함께 기증되었지만 다음 기회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최재완(47회) 기증, 폐백 치마저고리 감

1966년 폐백으로 받은 청홍 치마감 두벌과 분홍과 미색 저고리감 두벌이다. 치맛감은 각각 청홍 종이에 싸서 ‘청하의靑下衣’ ‘홍하의紅下衣’라고 쓴 종이띠와 청홍실을 둘렀고 저고리감은 ‘상의上衣’라고 쓴 띠를 둘렀다. 폐백의 포장지는 손상이 심하지만 귀한 자료이다.

박임숙(63회) 기증, 어머니 혼례 서류

1956년 혼례를 치른 하상례의 사주四柱, 연길涓吉, 상장上狀, 고천문告天文, 폐백 혼서지, 청첩장, 운현궁 예식장 계산서, 축사, 하객들에게 달아 주었던 종이꽃 등 혼례 관련 자료 일습이 전시되었다. 이외에 2차에 걸쳐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남아 돌복, 혼례함 등 135점이 기증되었다. 하상례는 본인을 인정해 주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시다. 그중 세 가지를 소개한다.

-박쥐와 호랑이 발톱

여자아이들은 아홉 살이 되면 바느질을 배우며 제일 처음 만드는 것이 괴불이다. 옷감을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잘라 두 장을 겹쳐서 가장자리를 사뜨기로 바느질하고 속에 솜을 넣어 만든 것이 괴불이며 이것을 몇 개씩 끈에 매달아 노리개같이 달고 다니며 솜씨 자랑을 하였다. 기증자는 이 괴불의 삼각형 끝을 위로 모아 꿰매 주면 박쥐가 되고 아래로 모아 꿰매 주면 호랑이 발톱이 되어 이것을 집 안에 걸어 놓거나 달고 다니면 벽사의 의미로 사악한 기운을 막아 준다고 하였다. 처음 기증에서는 이 괴불로 만든 호랑이 발톱과 박쥐는 아직은 자식들을 위해 걸어 놓겠다고 하시더니 두 번째 기증 때는 모두 주셨다.

-곡식 자루

긴 직사각형의 옷감을 엇선으로 접어 돌아가며 꿰매면 자루같이 되어 그 속에 곡식을 넣을 수 있다. 한말들이, 두말들이, 서말들이 등 자유로 만들 수 있다고 시범을 보여주셔서 박물관 식구들이 가방을 만들어 들고 다닌 적이 있다. 이 자루를 전시하려면 곡식을 가득 넣어야 모양이 살아 전시 효과가 있다고까지 알려주셨다.

-삼베 띠

아기를 업을 때 쓰던 띠를 말한다. 내가 민속조사를 다닐 때 수집되었던 자료인데 실제로 만들어 보지는 못해서 아쉬웠었다. 삼베를 짤 때 날실을 길게 남겨두고 짜기 시작하여 아기의 엉덩이 너비만

큼 씨실을 넣어 짜고 난 다음 다시 씨실을 길게 남겨두고 잘라서 띠를 만든다. 이때 처음과 끝부분은 묶을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남긴다. 긴 띠를 몇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 땀듯이 묶으면 끈이 되어 아기를 업을 수 있는 띠가 되는 것이다. 삼베는 통풍이 잘 되어 아기 건강에도 좋고 대마의 효능은 아기의 피부에 좋으며 아기가 소변을 보았을 때도 빨리 말라서 좋다고 한다. 실제 삼베를 짜서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깐 광목을 잘라 조그마하게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

자세히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열심히 설명해 주신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신이 나신다. 지혜와 재치의 덩어리이시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나 보다.

약혼복

두 점의 전시된 약혼복 중 하나는 김영희(50회) 기증으로 크리스티나 백희득(24회) 작품이다. 1960년대 드레스로 간단하고 소박한데 아르데코에 기본을 둔 시대의 반영이다.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우아하여 요즘 입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60년대까지는 약혼복으로 주로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나 기증자는 백희득 디자이너의 이런 멋진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멋쟁이었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의 약혼복은 1988년 드레스로 량유 김정아 작품이다. 전 시대와는 달리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아르누보 스타일의 부활로 보이며 발전된 나라의 상징이며 시대의 변천이 아닌가 싶다.

웨딩드레스

두 점 모두 1970년대 웨딩드레스다. 요즘의 화려한 드레스에 비해 소박하고 간단하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전문 웨딩샵이 따로 있기보다는 양장점 등에서 많이 맞추어 입었으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는 신부들도 있었다.

장경수(51회) 관장의 웨딩드레스는 러셀레이스로 로우웨스트에 주름을 잡아 소소하게 늘어지는 형태이며 베일은 이중이다. 당시 이대 앞의 한 양장점에서 특별히 제작해 준 드레스이다.

이인숙(55회) 초대 관장의 웨딩드레스는 오리지널리 이신우(48회) 작품으로 A-line 드레스에 가슴 부분을 진주로 장식하고 간단한 베일을 갖추었다. 백영사에 특별히 주문하여 세탁을 해왔다. 오랜 세월 특수세탁으로 유명한 백영사는 지금은 대를 이어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가끔 이용한다.

두 분 모두 보잘것없는 드레스라고 우려를 하였으나 손질하여 전시하니 시대성을 잘 반영해 준다. 또한 지금까지 간직해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양장

이번에 전시된 양장은 1장의 최경자를 시작으로 5장까지 이어진다. 기증 유물 중에는 크리스티나, 미스박테일러, 돌리언한, 안휘가로, 오리지널리, 엘리제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맞춤복과 기성복이 혼재되어 있던 시기이다. 이중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을 지낸 윤호미(48회)의 오리지널리(이신우 48회) 작품 6벌이 포함되어 있다. 각양각색의 독특한 작품들이다. 각지고 넓은 어깨와 주름잡힌 소매산 등이 다시 유행되어 가는 요즘의 트렌드로 지금 입어도 최첨단이 될 수 있겠다. 기증자가 한참 활약하던 때,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한국 디자이너의 훌륭함을 자랑하였다고 한다. 기증된 51벌의 옷들을 모두 세탁하여 보내셨으니 세탁비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양장 역사에서 경기여고 동문 디자이너들은 맞춤복뿐만 아니라 학원 경영, 양장의 기성복화, 세계시장 개척 등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에 백희득(24회, 크리스티나) 노명자(34회, 노라노) 박윤정(38회, 미스박테일러, ESMOD 원장), 신혜순(46회 한국의상박물관 관장), 이신우(48회, 오리지널리)가 있다.

남성복

서진강(36회)과 심재완(43회)이 기증한 남성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였던 두 분, 정일영 박사와 오윤경 대사의 복식이다. 서진강의 부군인 정일영 박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국민대학교 총장, 주 프랑스 공사, 주 스위스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다. 두 벌의 텍시도, 모닝코트, 보타이, 조끼, 벨트, 행커치프, 커프스버튼 타이핀 등 부속구 일습, 남자 양복, 베갯모와 자수보자기 등 80점을 기증하였다.

심재완의 부군인 오윤경 대사는 해군참모차장과 우루과이대사를 지내신 분이다. 텍시도와 부속구, 양복, 송옥 양장점 제작 홈스펀코트, 트렌치코트, 모자, 구두, 구두 덧신, 지팡이와 계급장 등 60점을 기증하였다. 또한 집안에 내려오던 선조들의 사진 원본 자료와 일백만원의 박물관 후원금도 내주셨다.

이인숙(55회) 기증 망토는 조부 이용석(1888~1939)의 유품으로 100년이 넘는 코트이다. 조부는 큰 사업을 하시며 육영사업과 기독교 전파에 힘쓰고 독립운동도 지원하신 분이다. 두벌의 코트는 어머니께서 소중히 간직해 오셨으며 두툼한 모직으로 만든 이 망토는 1.4후퇴 때 아이들을 업고 위에 둘러서 추위를 막는데 요긴하게 쓰였다고 한다.

어린이 옷

박성희(50회) 기증, 남아 돌복

3월이 끝나갈 무렵 전시 준비를 하는 도중 친구 박성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님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주셨다는 1939년생 남편의 돌복이라고 하였다. 급하게 약속을 하고 여의도로 가는 도중 웬지 예감 좋았다. 어린이 옷이 제법 있는 우리 박물관으로서는 2005년 <옛어린이 옷, 그 소중한 어여쁨>전시에 이은 두번째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보자기에 싸인 자주색 별문고단을 보는 순간 대박이구나 생각이 되었다. 보자기 안에는 별문고단 마고자, 까치두루마기, 색동 저고리 2점, 아기 베개용 베갯모 한 쌍과 수저집이 있었다. 수자표주박문이라는 옷감은 별문이라 하여 궁에서만 쓰던 특별한 무늬이다.

까치두루마기의 옷감과 바느질이 범상치 않았다. 색동저고리의 깃 둘레와 소매둘레 잣물림의 정갈한 솜씨, 돌 아이가 입었었다고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유물의 상태에 감탄이 나왔다. 대부분의 돌옷은 음식물, 침 등으로 오염이 심하기 마련이다.

바로 옆 여아 돌복 장에 전시된 아기용 동그란 베갯모, 그 정교함과 양증맞음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잣물림을 계속 돌아가며 붙인 둥근 형태이다. 세 번 접는 잣이 아니라 네 번을 접는 잣이다. 여러 바퀴 돌아가다 보면 자칫 두꺼워질 수도 있는데 알팍한 것이 솜씨가 좋은 침모의 바느질 솜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택은 평양으로 당시에 종합병원을 운영하시며 부유하게 사셨다고 한다.

이인숙(55회) 기증, 양단 남아 돌복

4월 초 한창 전시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지난번 웨딩드레스에 이은 두 번째로 이인숙 초대 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친정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남동생들(1950년생, 1953년생)의 돌복을 기증하겠다는 것이다. 연달아 돌복이라니 웬일인가 싶을 정도였다. 유물 인수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한 벌은 양단으로 만든 겨울용 한복이고 한 벌은 향라와 숙고사로 만든 봄, 가을용 한복이었다. 우선 큰동생의 옷에 눈길이 갔다. 1950년대 한창 홍콩 양단이 유행하던 시절, 돌쟁이 아이들에게도 알록달록 무늬까지 요란한 한복을 입혔다는 사실이다. 바지도 알록달록 저고리도 알록달록 조끼와 마고자까지 알록달록하다. 봉황과 모란 무늬가 어우러져 있는 비취색 마고자와 홍콩 양단에 솜을 알팍하게 두어 만든 돌복이 1950년대 홍콩 양단이 유행하던 한 시대를 반영해 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정우(63회) 기증, 남아 굴레

이정우의 많은 기증품 중에는 남아용 굴레가 포함되어 있다. 굴레는 서울과 개성을 비롯한 이북 지방에서 3-5세의 남녀 어린아이에게 씌웠던 쓰개의 일종이다. 굴레에는 아홉가닥 굴레와 세가닥 굴레가 있다. 세가닥 굴레는 주로 서울 지방에서, 아홉가닥 굴레는 주로 개성지방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전시된 쓰개는 남아용 쓰개로 검은색 비단에 화려하게 자수한 가닥을 모아 쓰개의 형태를 만들고 뒤에 검은색 드림과 가는 청색 드림을 달고 보라자주색 끈을 달아 앞에서 묶게 하였다. 가닥마다 화려하게 수를 놓아 남아용과 여아용의 구별이 어렵지만 드림으로 알 수 있다. 여아용은 홍색 드림을 달고 자수를 하거나 장식이나 구슬을 달기도 한다. 남아용은 검은색 드림을 달고 금박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남자아이의 굴레는 비교적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김경애(54회) 기증, 여아 색동저고리

김경애의 기증품에 남편의 돌복이라는 색동저고리와 전복, ‘승구’라고 이름을 수놓은 돌띠와 주머니가 포함되어 있었다. 색동두루마기와 색동저고리는 남녀 아이들이 입었으나 여자아이의 색동저고리는 깃 끝동, 고름이 모두 홍색인 반면 남자 아이의 색동저고리는 청색이다. 그러나 남자아이들 저고리에도 홍색 깃과 홍색 고름을 달기도 하였는데 이는 홍색이 장수, 부귀와 벽사의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끝동만은 여아는 홍색, 남아는 청색으로 구분하여 달았다.

기증자가 말하는 색동저고리는 여자아이용 색동저고리가 분명하다. 시누님의 것이 아니었나 싶다. 홍색의 깃, 고름, 끝동의 색과 저고리 길이로 보아 여자아이의 저고리임이 분명하다. 뒷길 중심에는 겹섶과 같이 잣물림을 한 것이 특징이다.

김옥자(54회) 기증, 여아 돌복

1970년대 여아 돌복으로 꽃분홍색 치마에 색동저고리와 초록색 당의로 일습을 이룬다. 당의는 초록색 공단 바탕에 모란꽃을 자수하였다. 기증자가 미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손녀딸에게 보내준 돌복으로 당시로서는 최고의 여아 돌복이었다고 한다. 이때는 나라 살림도 좀 부강해져서 여자들 한복에도 자수가 유행하였고 이런 시대적 특성을 어린이 옷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자 한복의 깃 길이가 길어진 것도 반영되어 재미있다.

여아의 복식 유물이 많지 않다. 국립고궁박물관에 덕혜옹주의 돌복,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에 덕온공주 돌복,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前한국자수박물관)에 여아 돌복이 몇 점 소장되어 있다. 우리 박물관은 덕혜옹주의 돌복 일습(당의, 치마저고리, 속옷)을 제작하여 소장하고 있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여자아이들에게는 일부 부유한 집안을 제외하고는 돌복을 갖추어 입히지 않고 치마저고리만 입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전경의(54회) 기증, 여아굴레

기증자의 외할머니가 수놓으신 굴레로 여아 굴레로 아홉가닥 가다가다에 화려한 수를 놓고 정수리에 화판을 올리고 실술 등으로 장식하였다. 뒤에는 두가닥의 홍색 드림을 달고 은칠보와 천도 모양의 장식을 달았다. 솜씨가 좋으셨던 외할머니가 만드신 수저집, 베갯모, 조각보 등 34점을 기증하였다.

남녀 한복

김민자(48회) 기증, 치마

치마 3점은 1912년생 친정어머니가 손수 장만하셨던 혼수이다. 1930년대 하브다이 뉴퐁, 서양목, 5죽항라 치마이다. 하브다이 뉴퐁이라고 불리었던 이 직물은 바닥이 명주와 같은 평직이며 다문다문 주자직으로 무늬가 있다. 일본에서 생산된 직물로 얇고 하늘하늘한 질감으로 치마저고리, 속옷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브다이 뉴퐁이라고도 불리었다. 서양목은 개항기 이후 서양에서 수입된 고급 면직물로 옥양목이나 포플린보다 고운 옷감으로 다듬이질을 하면 윤이 나고 가벼워서 치마감으로 많이 쓰였다. 치마 말기와 끈은 옥양목과 모시이다. 전시된 치마의 허리 말기 끈 묶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고름을 묶는 방법과 같고, 하나는 빗장걸이라 하여 고름 내지 않고 두 번을 돌려 묶는 방법이다. 고름 낼 경우, 저고리 고름과 겹쳐서 가슴이 불룩해 보이는 점을 고려한 묶음 방법으로 이 방법은 이해경(36회) 황손께서 알려주셨다.

김응원(38회) 기증, 겹저고리

생초 겹저고리로 1950년대 봉어배래 형태의 저고리이다. 전시되어 있는 3점의 치마와는 시대가 다르지만 옷감의 느낌이 같아 함께 전시하였다.

천유경(57회) 기증, 행의·바지저고리·두루마기

기증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나왔을 때 친정어머니가 보관해 오시던 일제강점기 관직을 지낸 증조부 천상하千象河의 유품을 기증하였다. 유품은 가족으로 만든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남자의 한복들은 모두 정갈하며 품위가 느껴지는 훌륭한 옷이었다. 모두 30점이다.

전시된 유품 중에는 항라 행의行依, 생초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외에 또 하나의 보물 저고리가 있

다. 이 저고리는 3족항라 겹감에 면항라 안감을 넣어 만든 저고리이다. 우리 박물관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견과 모시의 교직 저항라 적삼이 1점 소장되어 있으며 이후 한 점이 더 기증되어 2점의 저항라 저고리를 소장하고 있다. 면항라는 매우 귀한 자료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경희(41회) 기증, 솜저고리·솜마고자

1920년대 가슴 싸개와 속옷을 비롯하여 1930년대 남자 바지저고리, 직물, 소반, 백자꽃항아리, 화문석 등을 포함하여 66점을 기증했다. 전시된 솜저고리와 솜마고자는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착용하셨던 어머니께서 손수 지으신 혼수이다. 소재 명주 솜저고리와 솜을 얇게 둔 연회색 마고자를 함께 전시하였다. 거추장스러운 마고자 단추 대신 짧고 좁은 고름을 달아 실용성을 고려한 재치가 엿보인다. 선물로 받으셨던 명품 머플러 60여 점은 박물관 아트샵에 기증하였다.

이헌정(한복디자이너) 유품

기증된 유품은 모두 480여 점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복식 재현품, 이헌정 한복, 가전 유물, 이헌정 수집유물과 응용작품 등으로 분류된다. 고증으로 제작된 재현품은 원형재현이라기보다는 소재는 일치하지 않는 형태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시된 삼베 도포는 이헌정의 조부님의 도포로 반가의 유품이다. 전시된 여자 저고리 2점은 이헌정 수집품으로 시대별 저고리 여러 점에서 선택한 것이다. 두루마기는 이헌정한복 제작이며 여러 벌의 남녀 한복들이 함께 기증되었다. 이헌정의 한복은 품위가 있고 점잖은 한복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복식학자 유희경 선생님과 함께 복식을 공부하며 한복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9장의 마지막 전시품은 이헌정의 작품, 혼례복으로 우리 박물관에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혼례복들이 여러 벌 있다.

이번 기증전이 유물을 기증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과 기증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직까지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개항기 이후 변화기의 보물들을 수집하여 정리, 연구하는 것이 우리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증 받은 유물은 시대성을 고찰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1단계의 수집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기존의 수집유물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2차적 유물 수집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김영중(52회)이 기증한 국보급 사명기를 비롯하여 직물, 복식, 이불, 바느질 도구 등 280점은 별도의 전시를 할 계획으로 이번 전시에서 제외되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기증전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유물을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전시작업을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증자 명단 (2018년 3월 - 2022년 3월)

동문 85명

서진강 36	김종애 44	윤호미 48	장경수 51	이경희 54
나희균 38	김명임 45	박영숙 49	최동주 51	이미영 54
이영은 38	김선곤 45	양명자 49	강영자 52	이승리 54
김윤수 39	박영애 45	공영완 50	구복순 52	이인숙 54
이영숙 39	심재신 45	김영희 50	김영중 52	임연옥 54
이경희 41	이남주 45	박경자 50	김용정 52	전경의 54
한신자 42	이덕실 45	박성희 50	김종진 53	박점분 55
고광애 43	김수자 46	송광자 50	이영옥 53	우진순 55 (우혜원)
민완기 43	신혜순 46	이춘방 50	정진주 53	이인숙 55
심재완 43	장석향 46	전명애 50	김경애 54	이효영 56
이정희 43	김숙자 47	구선희 51	김옥자 54	천유경 57
장영신 43	최재완 47	유정순 51	김희영 54	설영자 59
현계순 43	김민자 48	이봉숙 51	배방훈 54	오수연 59

이용숙 59	이경희 62
류종숙 60	이혜원 62
이계호 60	박임숙 63 (하상례)
이영희 60	이숙명 63
이혜용 60	이원영 63
정계영 60	이정우 63
김영은 61	김종민 66
김혜진 61	
이상희 61	
지미영 61	
최기영 61	
황정희 61	
김현진 62	

일반 23명

고부자	이헌정(안소명)
권유진	양귀애
김말란	이병찬
김성호	이선희
김영숙	이혜림
김정란	임금희
김진아	조문자
김희진	조봉자
노소영	한혜숙
문희원	황의숙
박재연	
백미열	
송진섭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은 경운박물관으로 연락바랍니다.

전시장 전경

















